



충청남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2020. 12.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모임 결과보고서를 내면서

농촌의 과소화 문제, 농업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정착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진 방향과 세부 사업들이 필요할지 논의하고자 본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역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모임은 2020년 5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의원과 관련 전문가, 지역 활동가, 청년 농업인 등과 함께 세미나 및 현장방문,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논의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모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들이 구체화되어 충남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청년 농업인을 보듬고 공동체가 복원되는 마을이 늘어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것이 ‘누구나 살기 좋은 충남’의 농촌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연구모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신 동료의원님들, 연구모임 회원님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12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연구모임 대표 **양금봉**

목 차

■ 연구모임 회원현황

I. 연구모임 개요

- 1. 연구모임 개요: 연구모임 세부사업계획 3

II. 연구모임 활동 경과

- 1. 연구모임 1차 세미나 9
- 2. 연구모임 2차 세미나 및 현장방문 25
- 3. 연구모임 3차 세미나 및 토론회 48
- 4. 연구용역 발주 86

III. 연구모임 성과 및 정책 제언

- 1. 연구모임 활동 성과 93
- 2. 정책 제언 94

- 〈부록〉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97

연구모임 회원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대 표	양금봉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간 사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전익현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김기서	충청남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회 원	이현호	서천군 의원
회 원	김아진	서천군 의원
회 원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
회 원	김정섭	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
회 원	유승광	이상재선생기령사업회 이사장
회 원	신혜영	삼선재단 사무국장
회 원	정석호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회 원	신소희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연구원
회 원	최동혁	친환경청년농부 대표
회 원	김경태	친환경청년농부 서천 회장
회 원	차종원	서천군 4H 회장
회 원	이수진	친환경청년농부 서천 간사
회 원	황선덕	예산군 청년농업인협의회 사무국장

I

연구모임 개요

I. 연구모임 개요 : 연구모임 세부사업계획

1. 추진 목적

- 농업·농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잘 정착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

2. 추진 방향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청년 농업인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0년 12월(10개월)
-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업 발굴과 연계 방안 및 지원 체계 구축
 - 청년 농업인을 비롯하여 행정, 의회, 전문가 및 지역 현장 활동가, 청년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모임 수행
 -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역 단위 실천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3. 세부사업 계획

1) 연구활동 지원

- 사업개요 : 주요 과제 선정 및 세미나 개최
- 사업내용
 -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정기 세미나(3회)
 - 청년 농업인 실태 현황 및 쟁점도출, 추진과제 선정

-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 세부 사업 도출
- 사업간 연계 방안 모색 및 지역 단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 * 청년 농업인 활동 선진지 현장 세미나 개최(1회 포함)

2) 현장 방문

- 사업개요 : 전북 완주시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방문
- 사업내용
 - 전국 차원의 우수지역 현장방문
 - 충남도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

3) 충남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방안 모색 토론회

- 사업개요 : 청년 농업인과 함께하는 정책발굴 토론회
-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현장의 청년 농업인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로 지역 정책 방안 논의 및 선진 지역 사례 공유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지역 단위 실천을 위한 논의 구조 마련

4) 연구용역 발주

- 사업개요 :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 용역 발주
- 사업내용 : 청년 농업인과 보건지소가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보건지소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제안

5) 발간보고서·배포

- 사업개요 :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하여 연구 성과 공유
- 사업내용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4. 사업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20. 1월)
- 연구모임 1차 세미나(20. 5월)
 - 발족식 및 연구방향 논의
- 연구모임 2차 세미나 및 현장 방문(20. 6월)
 - 세부 정책과제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
- 연구용역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 용역 발주(20. 7월)
 - 10월까지 3개월간 연구 용역 진행
- 토론회를 위한 회의(20. 10월)
 - 세부 정책방안 마련 점검 및 토론회 준비
- 연구모임 3차 세미나 및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20. 12월)
 - 연구 성과 정리 및 연구모임 결과보고서 작성 의견 청취
- 보고서 발간 및 배포(20. 12월)

5. 기대효과

- 충남형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 세부 사업 마련으로 타지역과 차별화 되는 선도적 정책 개발
- 청년 농업인 지원을 위한 지역 단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 틀 마련
- 청년 농업인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자와 협력적 논의 구조 마련을 통해 도의회의 역량강화 성과 창출

II

연구모임 활동 경과

II. 연구모임 활동 보고

1.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1차 세미나

1) 연구모임 1차 세미나 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5. 7.(목) 14:00 ~ 17:00
- 장 소 :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 주 제 :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 현황과 토론 과제 선정, 연구모임 일정 논의
- 참석인원 : 18명(연구모임 회원 14, 직원 등 기타 4)



출처: MBS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담	당
14:00~14:05	5분	개회(진행안내 및 소개)		사회자	
14:05~14:10	5분	인사말씀		양금봉 의원	
14:10~14:40	30분	[발제]충남의 청년 농업인 영농 현황 및 실태		김기홍 (충남연구원)	
14:40~15:40	60분	토론 및 논의		양금봉 의원	
15:40~17:00	80분	총평 및 마무리		사회자	

2) 발제 및 토론 내용

□ 발제 주요 내용

- 충남의 청년 농업인 영농 현황 및 실태 조사 결과에 관한 발제
 - 충남 지역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실태 조사(2019년 11월 14일~11월 22일, 총 67명 대상) 결과 발표
 - 같은 청년 농업인이어도 승계농과 비승계농의 영농 환경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공통적으로는 다양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 제공, 안정적인 창농 지원, 후속 사업 연계 등 단계적 지원 필요
 - 통합된 청년 관련 기구 및 조직 등 제도 정비 필요
 - 지역 단위에서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조직과 연계 필요

□ 종합 토론

○ 주요 내용

- 〈소득〉 소득 증대의 어려움, 농산물 가격 문제, 사회적 농업 등 소득 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농 중심 정책 필요
- 〈자금〉 공정한 선정, 지원 제한 문제, 절차의 일원화, 거치 및 상환기간 확대
- 〈주택〉 초기 청년은 주택 문제 해결 필요. 빈집 활용은 어렵기 때문에 농막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과 렌탈 혹은 이동식 주택 저렴하게 제공 필요
- 〈정주〉 농업인 및 가족을 포함하는 농촌 복지, 특히 정주기반에 대한 문제 고려 필요
- 〈농지〉 부채지주 문제, 농사짓는 땅 확보 필요, 충남의 유휴지 10만 평 활용 방안 필요, 임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접근, 농지은행 방식이 아니라 마을 토지 우선 활용, 8년간 양도세 면제를 위한 임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농지법 개정, 토지 공동화 등

〈지역사회와의 관계〉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로 보고 대응 필요, 지역융화가 좋아져 농지 확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농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농민들 문제 접근 필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조 및 관계망 만들기 필요

〈네트워크〉 지역융화, 일자리 문제 등 다루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한눈에 보이는 네트워크 필요,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필요

〈교육〉 농촌지역 청소년을 지역에 남도록 하는 교육 필요, 교육 일정 등이 영농철과 겹치는 문제 발생, 농업 관련 전반적인 교육 부족, 농지 관련 교육, 친환경 농업 교육

〈통합적 지원 체계〉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책 개편, 농업 자원 즉 농지, 주거, 유통, 재배기술 연계 필요,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필요, 마을만들기 차원의 종합적 접근 필요, 거시적인 측면, 단계적, 체계적 중장기 계획 필요

〈도의 역할〉 도의 역할은 중앙정부 사업을 메꾸어주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며, 1~2년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 과정 필요,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 등 예비청년 육성을 통해 전 단계와 후속 사업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부 육성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접근 필요, 고령농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자체 중개 역할 필요, 농업농촌 청년 농업인 TF팀 구성 필요

〈이외〉 투자금, 리스크에 대한 완충 장치 필요, 수당(농민수당) 개념 필요, 농사에 대한 자부심 중요, 소비자 운동 필요, 정보 불일치, 미래 청년들의 참여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인식 필요

□ 종합평가

- 충남의 청년 농업인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 의식 공유
 - 청년 농업인이 처한 현실과 실태 공유
 -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 지원과 관련한 정책 세부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
- 청년 농업인 관련 향후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농지확보 방안(시군유지 활용 방안, 협업농장, 사회적 농업 확산 등과 연계한 방안 마련), 지역 단위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실질적 지원 정책(교육, 통합 등) 연계 방안 필요, 기반없는 청년 농업인 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충남도의회, 청년농 지역정착 지원 힘쓴다

한국농어민신문. 2020. 5. 12

충남도의회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발굴과 연계 방안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도의원,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꾸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서천군의회 이현호·김아진 의원 등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양금봉 의원은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나날이 감소되고 있다”며 “젊은 영농인재 발굴 등 농업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임 회원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모임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 연구모임 1차 발제 내용 : 김기홍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역정착 지원 방안”

충청남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충남의 청년 농업인 영농 현황 및 실태

2020. 5. 7 (목) 14:00~

충남연구원 김기홍
(kimkh@cn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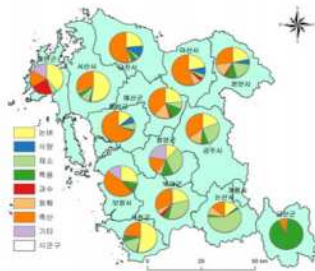
청년 농업인 육성, 왜 필요한가?

- 계속되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
- 농업은 계속될 수 있을까?
- 농촌의 지역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을까?
-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
- 충청도에서는 어떠한 지역 정착 지원을 해나가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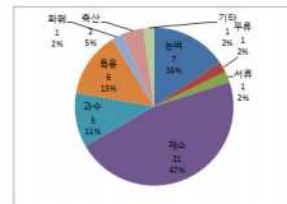
2

청년 농업인, 어떻게 다른가?

- 만 34세 이하 4-H 674명, 시군별 전수 조사 297명, **총 971명**(2016년) 대상
- 재배작목은 **축산(30.1%)**, 논벼(22.8%), 채소(20.8%), 특용(13.3%) 순으로 높음
- 축산의 경우, **홍성군 69.6%, 아산시 55.6%, 당진시 52.9%**, 보령시 47.5%, 예산군 38.1%
- 귀농인 40세 미만, 청년농산업창업지원사업 선정 31명(2016년) 대상 조사 결과
- 재배작목은 **채소(47%)**, 논벼(16%), 특용(13%), 과수(11%) 순으로 높음



<충남 만 34세 이하 4-H 영농 현황>
출처: 김기홍(2016)



<충남 만 39세 이하 귀농인 영농 현황>

출처: 김기홍(2016), 충남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추진 방향, 충남연구원

✓ 같은 청년층이어도 기반 있는 경우(후계농업인)과 기반이 전혀 없는 경우(귀농인)은 영농실태가 다르며, **다른 역할과 접근, 방향, 다른 정책 필요**

충남의 청년 농업인 영농 실태 조사

- **조사 대상:** 충남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 **조사 기간:** 2019년 11월 14일~11월 22일(9일간)
- **조사 방법:** 충남 친환경청년농부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탁하고 직접 회수
- **설문 항목:** 일본농업회의소 전국신규취농상담센터 설문지(2016년) 참고
(1996년부터 5년마다 청년의 신규취농 실태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음)
- **설문 결과:** 총 67명. 비승계창농(33명)과 승계창농(34명)으로 구분
(총 74부 가운데 만 40세 이상 7명을 제외. 설문대상자의 영농상황에 따라 '토지 등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고 새롭게 농업경영을 개시'하거나 '가족의 농업경영과는 별개로 새로운 부분을 개시'하는 경우를 비승계창농, 가족 및 배우자 가족의 전체 혹은 일부 계승하여 개시한 농업경영은 승계창농으로 구분함)

설문 조사 결과 (1) 일반적인 사항

[표 1] 영농장소

영농장소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주시	1	3.0%	-	-
금산군	2	6.1%	1	2.9%
논산시	1	3.0%	4	11.8%
보령시	1	3.0%	-	-
부여군	2	6.1%	3	8.6%
서산시	1	3.0%	1	2.9%
서천군	3	9.1%	1	2.9%
아산시	7	21.2%	5	14.7%
예산군	10	30.3%	13	38.2%
천안시	2	6.1%	1	2.9%
충청군	3	9.1%	5	14.7%
합계	33	100%	34	100%

[표 2] 연령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5세 미만	-	-	1	2.9%
25세 이상 30세 미만	6	18.2%	1	2.9%
30세 이상 35세 미만	12	36.4%	16	47.1%
35세 이상 40세 미만	15	45.5%	16	47.1%
합계	33	100%	34	100%
평균연령	34.0세		34.1세	

[표 3] 농가출신 여부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가출신이 아님	18	54.5%	5	14.7%
부모가 농가 출신이 아니지만 조부모는 농가출신임	6	18.2%	4	11.8%
농가출신임	9	27.3%	25	73.5%
합계	33	100%	34	100%

[표 4] 영농 전 업종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	2	6.5%	5	14.7%
임업	-	-	1	2.9%
제조업	6	19.4%	2	5.9%
건설업	1	3.2%	-	-
자영업	3	9.7%	3	8.6%
운송, 배송업	-	-	1	2.9%
관광서 및 단체	2	6.5%	1	2.9%
교육관련	4	12.9%	-	-
통신정보관련 서비스업	-	-	3	8.6%
그 외 서비스업	2	6.5%	4	11.8%
금융증권업	-	-	1	2.9%
의료관계	1	3.2%	1	2.9%
학생	4	12.9%	7	20.6%
무직	-	-	1	2.9%
기타	6	19.4%	4	11.8%
합계	31	100%	34	100%

5

(2) 영농 경위

[표 5] 영농 준비 기간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년 미만	4	12.9%	5	15.6%
1년 이상 2년 미만	18	58.1%	13	40.6%
2년 이상 3년 미만	4	12.9%	2	6.3%
3년 이상	5	16.1%	12	37.5%
합계	31	100%	32	100%
평균 준비 기간 (영농 교육 기간)	1.6년 (26개월)		2.8년 (20개월)	

[표 6] 영농하는 가운데 힘들었던 점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상당창구 찾기	8	4.1%	14	7.0%
가족의 이해	9	4.6%	24	11.9%
지역선택	1	0.5%	2	1.0%
영농기술 습득	40	20.6%	41	20.4%
농지확보	55	28.4%	35	17.4%
자금확보	62	32.0%	67	33.3%
주력확보	11	5.7%	10	5.0%
그 외	8	4.1%	8	4.0%
합계	194	100%	201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표 7] 영농 이유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은 하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43	21.8%	23	11.4%
원하는 대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40	20.3%	23	11.4%
농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2	1.0%	12	5.9%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12	6.1%	24	11.9%
역거리의 품질과 안전성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9	4.6%	12	5.9%
유기농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10	5.1%	12	5.9%
이전에 해오던 일의 기술을 살리고 싶기 때문에	3	1.5%	7	3.5%
아이를 기르는데 환경이 좋기 때문에	10	5.1%	7	3.5%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0	5.1%	10	5.0%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7	3.6%	4	2.0%
농촌 생활(사교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20	10.2%	12	5.9%
농가 후계자이기 때문에	3	1.5%	21	10.4%
배우자의 가족이 농가이기 때문에	1	0.5%	-	-
도시 생활이 맞지 않기 때문에	9	4.6%	7	3.5%
월급쟁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12	6.1%	18	8.9%
그 외	6	3.0%	10	5.0%
합계	197	100%	202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6

[표 8] 농지를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광역시자치체)나 전국단위의 귀농상담창구	-	-	2	4.3%
농업기술센터	1	2.8%	3	6.5%
시군읍면	-	-	1	2.2%
농협	-	-	3	6.5%
교육기관	1	2.8%	2	4.3%
일반농가, 농업법인	3	8.3%	3	6.5%
농업대학교 등	1	2.8%	-	-
인터넷	2	5.6%	2	4.3%
농업자재, 기계 등 업자	1	2.8%	-	-
부동산업자	10	27.8%	1	2.2%
유통, 소매업자	-	-	1	2.2%
부모, 형제, 친지, 지인	12	33.3%	20	43.5%
농어촌공사	2	5.6%	6	13.0%
은행 등 금융기관	-	-	1	2.2%
그 외	3	8.3%	1	2.2%
합계	36	100%	46	100%

[표 9] 주택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업기술센터	2	6.1%	2	5.9%
시군읍면	1	3.0%	1	2.9%
농협	-	-	4	11.8%
교육기관	1	3.0%	1	2.9%
일반농가, 농업법인	-	-	2	5.9%
인터넷	1	3.0%	1	2.9%
농업자재, 기계 등 업자	1	3.0%	-	-
부동산업자	9	27.3%	2	5.9%
부모, 형제, 친지, 지인	12	36.4%	15	44.1%
은행 등 금융기관	4	12.1%	2	5.9%
그 외	2	6.1%	4	11.8%
합계	33	100%	34	100%

[표 10] 자금을 확보할 때 정보를 얻은 곳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광역시자치체)나 전국단위의 귀농상담창구	1	2.2%	3	5.6%
농업기술센터	12	26.7%	7	13.0%
시군읍면	2	4.4%	4	7.4%
농협	8	17.8%	6	11.1%
교육기관	1	2.2%	2	3.7%
일반농가, 농업법인	1	2.2%	3	5.6%
서적이나 잡지	-	-	1	1.9%
인터넷	3	6.7%	2	3.7%
부모, 형제, 친지, 지인	4	8.9%	15	27.8%
농어촌공사	3	6.7%	1	1.9%
은행 등 금융기관	9	20.0%	7	13.0%
그 외	1	2.2%	3	5.6%
합계	43	100%	54	100%

[표 11] 영농 후 1년간 필요한 '기계 및 시설 등' 취득비용(농지 제외)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7	58.6%	11	39.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	17.2%	6	21.4%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4	13.8%	6	21.4%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1	3.4%	2	7.1%
3억 원 이상	2	6.9%	3	10.7%
합계	29	100%	28	100%
평균 금액	7천만 원		1억 9천만 원	

[표 12] 영농 후 1년간 필요한 비료, 종묘, 연료비 등 필요경비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천만 원 미만	9	31.0%	9	32.1%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8	27.6%	9	32.1%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6	20.7%	3	10.7%
3천만 원 이상	6	20.7%	7	25.0%
합계	29	100%	28	100%
평균 금액	1천 7백만 원		2천 3백만 원	

[표 13] 농지 구입 여부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입한 농지가 있다	20	69.0%	9	28.1%
구입한 농지가 없다	9	31.0%	23	71.9%
합계	29	100%	32	100%

[표 14] 취득한 농지의 면적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 m ² 미만	10	50.0%	3	37.5%
5천 m ² 이상 1만 m ² 미만	9	45.0%	2	25.0%
1만 m ² 이상	1	5.0%	3	37.5%
합계	20	100%	8	100%
평균 농지 취득 면적	4천 9백 m ²		6천 4백 m ²	

[표 15] 취득한 농지의 금액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억 원 미만	6	31.6%	4	57.1%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9	47.4%	2	28.6%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3	15.8%	-	-
3억 원 이상	1	5.3%	1	14.3%
합계	19	100%	7	100%
평균 농지 취득 금액	1억 3천 6백만 원		1억 1천 4백만 원	

[표 16] 농지 취득시 활용 금융기관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어촌공사	2	7.1%	-	-
농협	13	46.4%	7	70.0%
은행 등 금융기관	2	7.1%	-	-
자기자금	8	28.6%	3	30.0%
그 외	3	10.7%	-	-
합계	28	100%	10	100%

[표 17] 전체 자기자본금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8	29.6%	17	63.0%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	33.3%	4	14.8%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7	25.9%	2	7.4%
2억 원 이상	3	11.1%	4	14.8%
합계	27	100%	27	100%
전체 자기자본금 평균 금액	8천 2백만 원		1억 4천 8백만 원	

[표 18] 농지/기계/시설 취득, 영농을 위한 자기자본금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0	47.6%	17	73.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6	28.6%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5	23.8%	3	13.0%
2억 원 이상	-	-	3	13.0%
합계	21	100%	23	100%
평균 농지/시설 취득 자금	6천 4백만 원		1억 4천 5백만 원	

[표 19] 영농자금 대출 여부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빌린다	24	75.0%	17	50.0%
빌리지 않았다	8	25.0%	17	50.0%
합계	32	100%	34	100%

[표 20] 영농자금 대출시 지장을 느꼈던 부분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보증인 확보	2	1.6%	9	10.3%
담보 확보	29	22.8%	16	18.4%
이용가능한 제도자금이 없었다	10	7.9%	4	4.6%
금리가 비싸다	22	17.3%	12	13.8%
융자액에 적다	20	15.7%	11	12.6%
상환기간이 짧다	37	29.1%	16	18.4%
특별히 지장을 느낀 적 없다	4	3.1%	12	13.8%
기타	3	2.4%	7	8.0%
합계	127	100%	87	100%

[표 21] 주거확보 방법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농가의 빈집을 빌렸다	4	12.5%	3	9.1%
농가 이외의 빈집을 빌렸다	6	18.8%	-	-
공영임대주택을 빌렸다	-	-	1	3.0%
민간임대주택을 빌렸다	4	12.5%	-	-
농가 이외의 빈집을 샀다	1	3.1%	3	9.1%
신축했다	4	12.5%	2	6.1%
고향집	10	31.3%	22	66.7%
배우자의 고향집	-	-	1	3.0%
기타	3	9.4%	1	3.0%
합계	32	100%	33	100%

9

(3) 농업경영 상황

[표 22] 현재와 영농 초창기의 나이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5세 미만	-	-	-	-	1	3.0%	1	3.6%
25세 이상 30세 미만	6	20.0%	6	26.1%	1	3.0%	6	21.4%
30세 이상 35세 미만	11	36.7%	10	43.5%	15	45.5%	8	28.6%
35세 이상 40세 미만	13	43.3%	7	30.4%	16	48.5%	13	46.4%
합계	30	100%	23	100%	33	100%	28	100%

[표 23] 농업경영 규모 변화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농업경영 경지면적	28	2,077m ²	18	1,670m ²	28	5,143m ²	20	3,410m ²
위 면적 중 임대 (임대 비율)	14	1,713m ² (82.5%)	9	1,306m ² (78.2%)	19	4,989m ² (97.0%)	11	2,582m ² (75.7%)
시설원예의 경우 시설면적	19	1,139m ²	9	909m ²	21	1,343m ²	11	1,209m ²
축산경영의 경우 사육두수	1	1두	1	1두	7	204두	3	30두

[표 24] 주요 작목 변화

구분	비승계장능				승계장능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수도작	16	14.4%	8	12.5%	21	15.9%	15	21.7%
보리, 잡곡류, 두류	10	9.0%	3	4.7%	8	6.1%	7	10.1%
일반채소	22	19.8%	12	18.8%	18	13.6%	10	14.5%
시설채소	42	37.8%	31	48.4%	37	28.0%	9	13.0%
화훼	1	0.9%	-	-	3	2.3%	3	4.3%
공예작목(허브 등)	5	4.5%	5	7.8%	5	3.8%	3	4.3%
과수	12	10.8%	5	7.8%	2	1.5%	-	-
벼식	3	2.7%	-	-	12	9.1%	12	17.4%
사료작물	-	-	-	-	2	1.5%	2	2.9%
기타 경종작물	-	-	-	-	6	4.5%	-	-
낙농	-	-	-	-	6	4.5%	3	4.3%
육용우번식	-	-	-	-	10	7.6%	5	7.2%
육용우비육	-	-	-	-	2	1.5%	-	-
합계	111	100%	64	100%	132	100%	69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10

[표 25] 농산물 매출 변화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5천만 원 미만	13	65.0%	8	80.0%	13	54.2%	9	64.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5	25.0%	1	10.0%	5	20.8%	3	21.4%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2	10.0%	1	10.0%	4	16.7%	1	7.1%
2억 원 이상	-	-	-	-	2	8.3%	1	7.1%
합계	20	100%	10	100%	24	100%	14	100%
평균 농산물 매출	4천 2백만 원		3천 3백만 원		1억 1천 6백만 원		5천 2백만 원	

[표 26] 농업소득 변화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천만 원 미만	5	25.0%	3	33.3%	3	12.5%	2	14.3%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3	65.0%	4	44.4%	14	58.3%	9	64.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5.0%	1	11.1%	5	20.8%	1	7.1%
1억 원 이상	1	5.0%	1	11.1%	2	8.3%	2	14.3%
합계	20	100%	9	100%	24	100%	14	100%
평균 농업소득	2천 7백만 원		3천만 원		3천 5백만 원		4천 5백만 원	

[표 27] 농외소득 변화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현재(2019년)	1년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천만 원 미만	3	30.0%	2	40.0%	6	54.5%	5	62.5%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	70.0%	3	60.0%	4	36.4%	3	37.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	-	-	1	9.1%	-	-
1억 원 이상	-	-	-	-	-	0.0%	-	-
합계	10	100%	5	100%	11	100%	8	100%
평균 농외소득	1천 5백만 원		1천만 원		1천 3백만 원		9백만 원	

[표 28] 농업으로 생계가 유지되는지 여부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6	21.4%	16	48.5%
그렇지 않다	22	78.6%	17	51.5%
합계	28	100%	33	100%

[표 29] 생계 유지 시기 및 농업매출과 농업소득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영농 후(몇 년째)	7	2.9년	12	3.3년
농업매출	7	6천 7백만 원	11	5천 7백만 원
농업소득	6	5천 1백만 원	10	3천 5백만 원

11

[표 30] 생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3년 미만	7	31.8%	3	17.6%
3년 이상 5년 미만	5	22.7%	3	17.6%
5년 이상	1	4.5%	5	29.4%
알 수 없음	9	40.9%	6	35.3%
합계	22	100%	17	100%
평균	2.5년		9년	

[표 31]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실천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모든 작물을 유기농업으로 하고 있음	5	16.1%	9	26.5%
일부 농산물을 유기농업으로 하고 있음	2	6.5%	1	2.9%
모든 작물을 무농약으로 하고 있음	9	29.0%	12	35.3%
일부 농산물을 무농약으로 하고 있음	4	12.9%	4	11.8%
앞으로 할 예정임	8	25.8%	6	17.6%
당분간 할 예정은 없음	3	9.7%	2	5.9%
합계	31	100%	34	100%

[표 32] 현재 경영면에서 힘든 점이나 과제로 삼고 있는 것

구분	비승계장농		승계장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설비투자자금의 부족	29	15.6%	40	19.7%
운송자금의 부족	32	17.2%	39	19.2%
소득이 적은 점	51	27.4%	26	12.8%
경영분석 방법을 모르겠음	-	-	6	3.0%
경영계획이 서지 않음	5	2.7%	1	0.5%
기술이 미숙	11	5.9%	24	11.8%
판매가 생각처럼 안됨	8	4.3%	8	3.9%
농지를 얻기 어려움	12	6.5%	15	7.4%
노동관리	2	1.1%	-	-
정보가 적음	1	0.5%	3	1.5%
상당 상대가 없음	1	0.5%	1	0.5%
농사지을 작목을 잘 모르겠음	2	1.1%	3	1.5%
후계자가 없음	1	0.5%	1	0.5%
세무대리	-	-	1	0.5%
노동력 부족(일손이 부족)	26	14.0%	16	7.9%
선대의 경영주(부모님)와 의견이 맞지 않음	3	1.6%	9	4.4%
선대의 경영주(부모님)가 맡겨 주지 않음	-	-	4	2.0%
경영 전반	2	1.1%	3	1.5%
기타	-	-	3	1.5%
합계	186	100%	203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12

[표 33] 현재 생활면에서 힘든 점

구분	비승계청농		승계청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건강상의 불안(노동이 힘들)	29	15.7%	18	9.6%
가족의 이해와 협력 부족	7	3.8%	25	13.3%
마을 사람과의 인간관계	10	5.4%	11	5.9%
마을의 관행	5	2.7%	8	4.3%
자녀 교육	17	9.2%	15	8.0%
사생활 보호	4	2.2%	14	7.4%
교통, 의료 등 생활면의 불편함	22	11.9%	13	6.9%
마을 활동 등에 대한 참여가 많음	16	8.6%	11	5.9%
생각보다 휴가를 갖기 어려움	29	15.7%	46	24.5%
또래가 적음	29	15.7%	10	5.3%
배우자가 지역과 농촌 생활을 힘들어 함	4	2.2%	10	5.3%
아이가 지역과 농촌 생활을 힘들어 함	4	2.2%	-	-
기타	9	4.9%	7	3.7%
합계	185	100%	188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표 34] 5년 후 농업경영 전개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구분	비승계청농		승계청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면적, 두수의 규모 확대	25	13.0%	40	19.6%
신규 작목의 도입	11	5.7%	16	7.8%
직접 판매	27	14.1%	16	7.8%
신규재배기술 도입	7	3.6%	22	10.8%
농산가공	11	5.7%	8	3.9%
관광농업 및 레스토랑	3	1.6%	4	2.0%
비용 삭감	10	5.2%	11	5.4%
노동환경 개선	12	6.3%	18	8.8%
단로 확대	39	20.3%	28	13.7%
기술 향상	17	8.9%	7	3.4%
품질 향상	11	5.7%	14	6.9%
단위당 생산량 확대	14	7.3%	9	4.4%
고종 도입	3	1.6%	5	2.5%
법인화	1	0.5%	1	0.5%
선대 경영주로부터 세대교체	1	0.5%	2	1.0%
기타	-	-	3	1.5%
합계	192	100%	204	100%

주: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 적용한 후 합산

13

(4) 지역농업과 지역활동

[표 35] 지역농업 주체로 기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구분	비승계청농		승계청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22	71.0%	18	54.5%
그렇지 않다	9	29.0%	15	45.5%
합계	31	100%	33	100%

[표 36] 지역과 융화 여부

구분	비승계청농		승계청농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그렇다	28	90.3%	26	76.5%
그렇지 않다	3	9.7%	8	23.5%
합계	31	100%	34	100%

<청년 농업인의 전반적인 정책 수요>

키워드	내용
토지	-안정적인 농지 확보가 필요 -임대 토지를 구하기가 어려움 -토지 구매의 어려움
자금	-지원 자금의 공정한 선정 및 집행 -자금이 지원에 제한이 많고, 절차의 일원화 필요 -자금의 가치기간과 상환 기간의 확대 및 금리 인하 -빠른 자금지원 절차 필요 -시설 등에 대한 보조금 확대 -생활과 관련된 현실적 보조금 필요
교육	-사전 교육 장소 및 기관 필요 -농업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이 부족함 -전문적인 교육과 시설과 자금을 위한 지원이 필요 -판로/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선도농가의 선형기준 완화와 농가보상 확대 -농지임대 및 매매에 관련한 교육 필요
융화	-비승계창업농과 승계창업농의 융화 촉진 -청년농의 나이제한 상한선 확대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필요
거주	-신규 영농인의 주거문제 해결
기타	-가계 임대 필요 -단기농업인력지원 -시범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소 필요 -안정적인 유통채널과 판로 필요

14

농지와 관련한 문제들

- (1)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
- (2) 계약 파기 보상과 지상권 문제
- (3) 우선순위 문제
- (4) 논농사 위주 및 타 작물 생산 원칙 문제
- (5) 공고 관련 문제
- (6) 타 지원사업과의 연계 문제
- (7) 경자유전 문제

출처: 농지와 관련한 청년 농업인 심층 면담 결과

<농지 관련 정책 수요>

키워드	내용
임대	-토지임대를 받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좀 더 많은 기회 제공 -청년 농업인의 나이 제한이 너무 낮아 농지 임대의 어려움이 많음 -농지 임대 후 휴경농지의 경우, 휴경농지의 재 임대 제도 필요 -정부지원에서 휴경지를 매입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 -농림구역 외 임대도 추진 필요
제도정비	-농업자금 지원정책의 정비 및 확대 -자금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 -예비농업인 대상 1~2년 임대 제도 필요 -초기 정착에 필요한 토지임대에 대한 안내 -공무원들의 관행적 태도 변화 필요 -청년 농업인 증장기 풀면
농지은행	-농지은행의 적극적 활용 및 상담창구의 일반화 -농지은행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그 마을 우선 토지활용
지역	-지역융화를 통해 지역내 토지가 청년에게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할 것임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농지 문제 해결 -토지 공동화로 여러 청년이 함께 농사짓도록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대농지 필요 -마을 단위(소유 등)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동 토지가 필요

15

주요 쟁점

- ✓ 영농과정의 힘든 점은 **자금확보, 농지확보, 영농기술습득!**
- ✓ 농지, 주택, 자금 정보 획득 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의 역할은?**
- ✓ **농지확보**와 관련한 지원은 가능한가?
 - 비승계창농은 농지를 구입하는 경향이 크다
 - 취득농지 금액은 1억3천만 원(비승계창농), 1억천만 원(승계창농)
 - **공공임대농지 확대? 조례안을 통한 지역 단위 실천 가능? 지역 내 조정 기능 가능?**
- ✓ 소득이 적은 문제, 운용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문제는?
- ✓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은 가능한가?
- ✓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의 역할?
- ✓ **토지, 자금, 교육, 지역 융화, 거주 등 정주기반 등 전반적인 지원체**
계 검토 필요

16

청년 농업인이 말하는 필요한 지원?

- 정서적 문제: 텃세와 외로움, 농업에 대한 편견 등
- 물리적 문제: 농지, 주거 및 정주기반, 일자리 문제 등
- 필요한 지원: 교육(학습회, 단계별 영농교육, 실천농장), 공공임대주택, 체류형 멘토멘티제, 농지임대지원,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등

	□ [후계농업인]	□ [후계농업인]	□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	□ [청년농업인이 아닌 자]	□ [청년농업인이 아닌 자]
청년 농업인 육성 방안에 대한 의견	[농지임대] [멘토] [연구회]	[기존 농민과의 문 적 갈등] [농촌 가치 이해] [농촌 복지 홍보] [멘토-인턴제 확대] [소농 청년층 육성]	[토지매매 확대] [농업기술센터에 만 의존하기 힘들] [농지-희곡세 등 간 정보 연계] [장년 연행중 확대]	[다양한 교육과정 급선무] [청년인의 집 등 임 시거처] [농장대 및 정보공 유를 위한 단체 동]	[농지임대] [청년인의 집 등 임 시거처] [지역주민과 다양 한 교류 채널]	[농지임대] [농촌 내 일거리] [대처 문제]

출처: 김기홍(2018),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사례, 농촌지도와 개발, 제25권 제3호, pp. 161-173

17

일본 교토부의 청년 농업인 지원 과정



18

청년 정착 지원,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나?

(1) 지역 단위 논의 필요: 당위성

-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등등 지역과 지역 농업의 본연의 모습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의 논의(지역 법인, 협동조합, 농지 확보, 거주 기반, 공동체 활동 등)

(2) 직접적인 문제 해결과 타 프로그램과 연계: 지속성

- 실제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에서 나아가 다양한 타 사업과 연계하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립하는 일 필요(농업사업과 농업외 사업의 연계_충남 친환경청년 농부사업, 도시청년 조보농부 실천농장+지역착근형 인재육성,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등)

(3)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확장성

- 농업, 농촌, 복지 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청년 농업인의 확장된 역할 인식 필요(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회적 농업, 커뮤니티 케어, 적정기술, 각종 마을 사업 등_신활력플러스, 균형발전사업 등)

19

청년 정착 지원 방향과 과제

- **기본 인식:**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 가치 재인식 + 전승을 위해서는 지역에 다양한 청년이 필요하다!
- **체계 정비:** 충분한 진로 탐색과 다양한 경험 연계 과정 + 안정적인 창농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 후속 사업
- **기반 정비:** 창농 + 거주 + 복지 + 네트워크 등 연계
- **제도 정비:** 통합된 청년 관련 기구 및 조직 필요
- **지역 논의:** 새로운 인력 맞을 준비, 지역에서 하자!(땅을 내놓을 사람도 지역에 있다) 지역단위 계획 +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일본, 사람농지플랜)

20

충남 청년 농업인 정착 과정 로드맵



21

감사합니다!

2.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2차 세미나 및 현장방문

1) 연구모임 2차 세미나 및 현장방문 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6. 30.(화) 10:00 ~ 17:40
- 장 소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23, 1층)
- 주 제 : 청년 농업인 지원 중간지원조직 사례와 현장 탐방 및 관련 토의
- 참석인원 : 21명. 연구모임 위원 등 15명(도의원 2명, 군의원 2명, 회원 7명, 의원실 4명),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청년활동가 2명,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청년기획팀장 등 공무원 3명



2) 현장 방문 및 토론 내용

□ 발제 주요 내용

-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활동 사례 발표
 - 완주군의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완주군의 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옴
 - 완주군의 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에 관여하면서 숙박체험관과 장터 등 청년의 주거 공간은 물론 청년들이 함께 만나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감하는 거점 공간들을 확충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옴
 - 특히 완주군에서는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을 중심으로 청년정책 JUMP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민관협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대해가는 활동들을 지속해 옴
 - 현재 카페를 포함해 3가지 거점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 지원플랫폼을 지역자산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민과 활성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종합 토론

-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지원 정책 필요
 - 지역 정주, 안정적 농업 기반 확충, 일자리, 공통의 논의의 장 등 다양한 청년 농업인 관련 정책이 연계되어갈 필요가 있음을 공감
 - 도, 군, 면 단위 역할과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분담 필요
- 청년 농업인 거점 공간을 시작으로 플랫폼 기능으로 확대 필요
 - 도·군유지를 활용한 청년 농업인 거점 공유 공간 필요
 - 청년 농업인 거점 공간을 시작으로 청년 농업인 정책을 발신하는 종합 창구격인 플랫폼 기능으로 확대해가는 방안 필요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양금봉 충남도의원, 청년층 유입으로 농촌에 활기를! 충남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 연구모임 '현장방문'

충남신문. 2020. 6. 30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은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30일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을 비롯한 전익현(서천1·더불어민주당)·김기서(부여1·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관련 전문가 등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은 청년을 환대하고 지역을 연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비전으로 2013년 출범한 청년지원 사업·마을교육 활동·지역문화 기획·커뮤니티 공간 활동분야 단체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김주영 대표로부터 완주군 청년정책 관련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고 청년활동가와의 간담회를 갖고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양 의원은 “영농기에 접어든 농업 분야도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청년층 유입으로 영농에 관심을 가지고 농업 분야로 진출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농업을 이끌고 가는 핵심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발굴·접목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숙 기자

□ 연구모임 2차 발제 내용 : 김주영(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

완주군 청년정책을 통해 살펴본 지자체 청년정책의 의미와 과제

김주영(토리)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 /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완주군 청년정책수립연구 ·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책임자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커뮤니티부엌 '모여라000'
공유공간 '온누리.풀.씨'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지역문화기획 '공냥공냥'
청년지원사업 '비빌언덕'
마을교육활동 '마을과미래'
커뮤니티공간 '다움타운'

설립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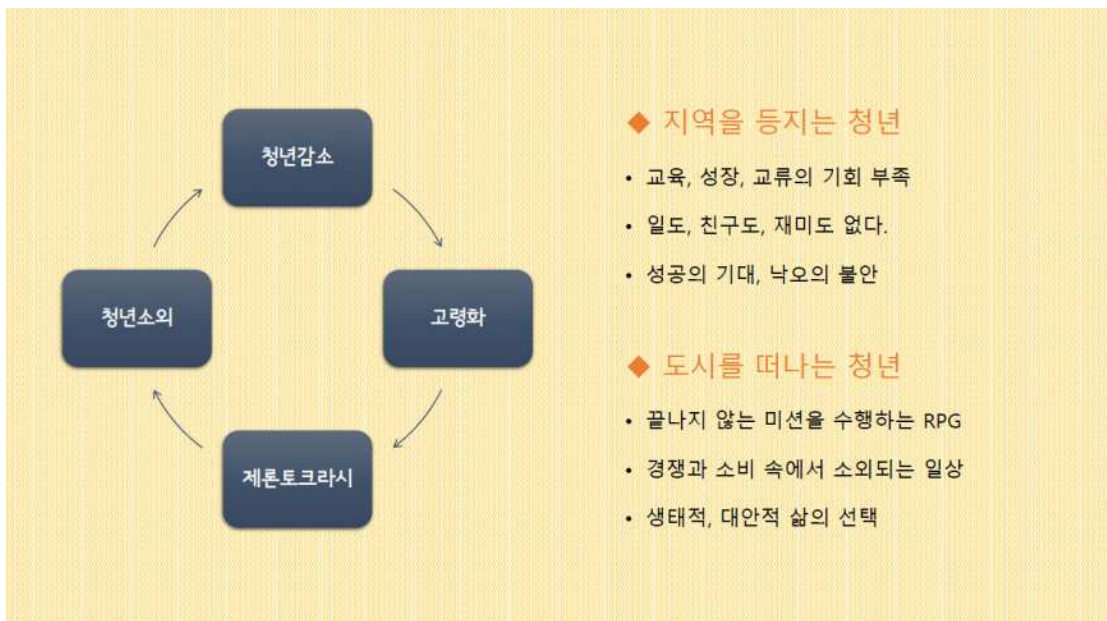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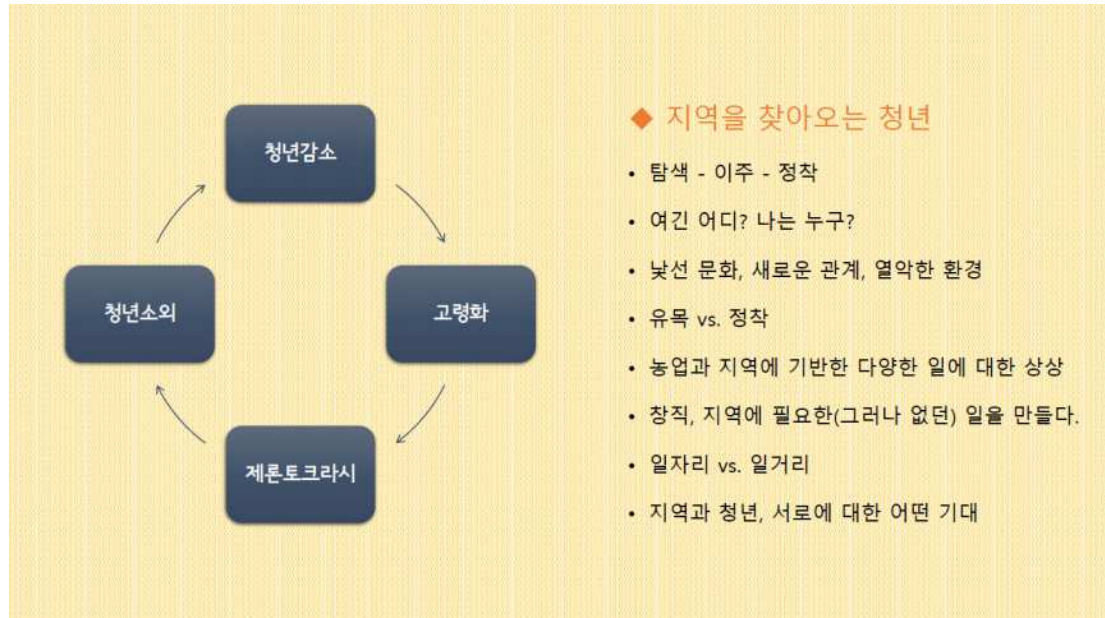
활동

2013년 10월 완주군 삼례읍
(2017년 3월 고산면으로 이전)

청년을 환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며,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 서천 '삶기술학교'

목포 '괜찮아마을' ...→



☞ 남해 '팜프라'

상주 '청년이그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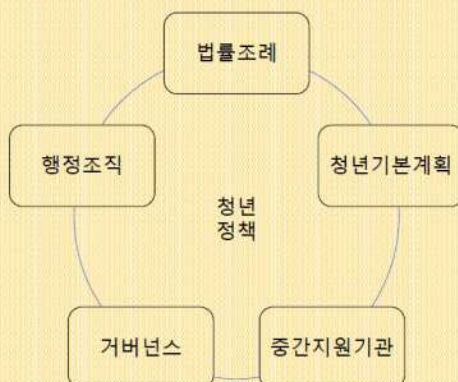


지자체 청년정책

- 최근 여러 지자체가 청년의 주거, 건강, 금융, 문화, 진로모색 등 청년이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청년정책으로 실행하고 있음.
- 청년문제를 고용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이 겪는 다차원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청년정책이 제안되고 있음.
- 청년정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중앙정부 차원의 청년정책과 지자체 차원의 청년정책은 규모와 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과 형식도 다름.
- 또한 청년을 다층적 내부구성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청년의 집단별 상황과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음.



지자체 청년정책



-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체계 구축 필요
- 거버넌스 구축은 청년이 정책의 대상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직접 개발하고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장치이자, 민과 관이 협력하는 자리로서 청년정책 실행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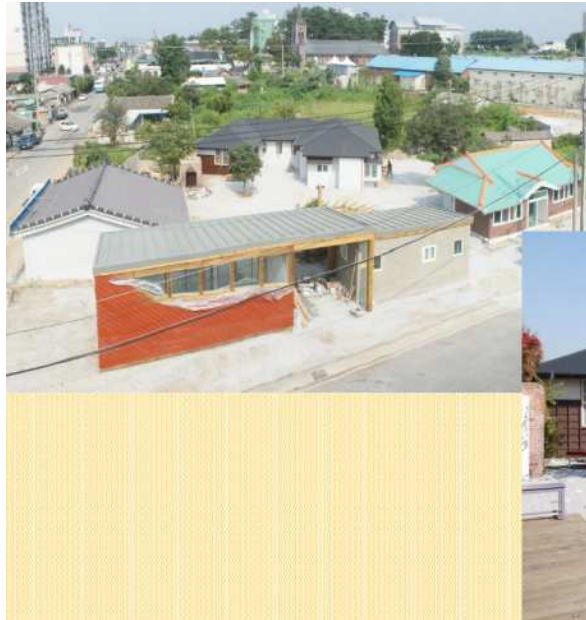
JUMP 프로젝트

- 완주군은 2016년부터 군 단위 지자체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동시에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전개해 왔음.
- 2016년 수립된 '완주 청년정책 JUMP 프로젝트(이하 JUMP 프로젝트)'는 지역 청년의 이탈과 감소, 도시 청년의 이주와 정착, 청년 문화 및 커뮤니티의 부재 등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함.
- 완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청년이 지역 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음.
-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를 청년정책의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분야 23개 사업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취업·창업), 머물고(주거·정착), 어울리고(참여·교류), 성장하는(교육·문화) 토대를 만들고자 하였음.



JUMP 프로젝트





삼삼오 게스트하우스 (2014~2016)

- 공공문화커뮤니티'씨앗[C.Art]' 운영
- 삼례문화예술촌 숙박체험관
- 한겨레 청춘스테이션 1호점
- 완주군 청년정책이 시작된 곳



토요문화장터 '퐁남마켓' (2015~2016)

- 공공문화커뮤니티'씨앗[C.Art]' 주관
- 이주청년 중심 30여명 참여, 50여회 개최
- 문화상품, 수공예품, 로컬푸드 등
- 청년과 지역이 만나게 된 계기





모여라000 (2015~현재)

- '콩남마켓' 참가자의 자발적 모임
- 매번 달라지는 컨셉
- 요리, 바느질, 수공예 등
- 커뮤니티부역으로 발전



**귀촌은 했지만 자립은 어려워
완주 청X춘살이 캠프**

학교 졸업자, 지속가능하게, 경제적 자립에서 살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위해 완주는 귀촌한 사람들이 느낀 세로직격이 있다.
국가 도망자라면, 그들도 완주가 공공적이고 안전한 정착을 시켜줄까?
그들의 고민과 나누고, 서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보게 해 보는 시간!

장소
완주농촌문화교육원 (완주군청 1층)
완주 전통문화체험관(완주군청 1층)

일정
11월 18일(일) 14:00~16:00
- 장단: '정체를 넘어, 삶의 가치, 통찰'을
- 장단: '농촌의 문화, 전통과 자립을 추구하는 농업의 실험' 이론
11월 19일(월) 10:00~12:00
- 장단: '완주에 귀촌한 사람들' 이론
- 장단: '완주에 귀촌한 사람들' 이론
- 장단: '완주에 귀촌한 사람들' 이론

2018
11.18(일) - 11.19(월) 1박2일

완주군청, 완주농촌문화교육원, 완주 전통문화체험관, 완주군청 1층, 완주군청 1층



청년귀농귀촌캠프 (2015~2018)

- 공공문화커뮤니티'씨앗[C.Art]' 주관
- 총 11회, 150여명 참가
- 정책소개, 탐방, 교류, 사람책 등

청춘
귀농귀촌
지역에서 길을 찾는 청년들

완주 한겨레청춘스테이션
한겨레청춘스테이션은 완주를 소관하여 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사재를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이 대안적이고
개성적인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지역별 청년 1인 기업, 대안농업,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전 한겨레청춘스테이션에서는 완주농촌문화교육원(완주군청 1층)에서 10월 10일(토)에 완주청춘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에서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일 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 장 소 완주농촌문화교육원 (완주군청 1층) 완주군청 1층(완주군청 1층)
· 내 용 청년귀농귀촌사례발표(완주군청 1층) 완주군청 1층(완주군청 1층)
· 주 최 완주청춘포럼(완주군청 1층) 완주군청 1층(완주군청 1층)
· 주 관 완주청춘포럼(완주군청 1층) 완주군청 1층(완주군청 1층)



한겨레청춘스테이션 포럼 (2016.02)

- 공공문화커뮤니티'씨앗[C.Art]', 한겨레21 주관
- 청년이주(귀농귀촌) 사례공유 및 정책제안
- 완주군 청년정책이 시작된 날

제1회 완주청년포럼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

[illegible][illegible]

中 國 電 子 商 務 網
 中 國 電 子 商 務 網
 中 國 電 子 商 務 網
 中 國 電 子 商 務 網
 中 國 電 子 商 務 網
 中 國 電 子 商 務 網



제1회 완주청년포럼 (2016.07)

- 공공문화커뮤니티'씨아트[C.Art]' 주관
- 완주군 청년정책기본계획 발표
- 시흥, 남원, 금산 등 사례공유

JUMP 프로젝트

- JUMP 프로젝트는 조례, 기본계획, 전담조직 등 정책 인프라 구축,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 도출 노력, 청년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 등이 결합된 결과물임.
- 2016년 8월 청년전담부서 설치와 청년기본계획 수립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같은 해 12월 「완주군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음. 2017년부터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운영됨.
- JUMP 프로젝트는 2017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년정책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사회혁신 분야 최우수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음.
- 한편 JUMP 프로젝트는 대도시의 청년정책보다 지역의 환경 및 자원과 상대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수립되고 발전해왔음. 즉 청년인구 감소라는 지역의 상황이 반영되었고,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음.



청년거주+커뮤니티공간
완주 청년쉐어하우스 8호점 오픈
일시: 2019. 6. 5(수) 장소: 봉동읍 낙평산길 47

청년쉐어하우스 (2017~현재)

- 봉동, 삼례, 고산, 이서 등 9개소
- 현재 35여명 거주
- 귀농귀촌 촉진 및 지역이탈 방지
- 행복주택, 저축지원 등 연계 필요

눈부시게 빛나는
너의 오늘을
응원해!!

눈부시게 빛나는
너의 오늘을
응원해!!



청년정책네트워크 (2017~현재)

- 청년정책 발굴 및 제안
- 매년 15~30명 참여
- 청년참여예산 연계
- 2020년부터 청년정책이장단 전환



청년창업공동체 (2017~현재)

- 청년 공동체(3인 이상) 창업 지원
- 최대 1,000만원, 최장 3년 지원
- 홍보디자인, 장비구축, 신제품개발 등
- 2019년까지 14개 공동체 참가



JUMP-UP 프로젝트

- JUMP 프로젝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출범 이후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개선과 도약의 필요성이 제기됨.
- JUMP 프로젝트가 청년의 지역 이탈을 막고, 청년의 유입 정착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완주군 청년인구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청년정책은 지역과 청년의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데, JUMP 프로젝트는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와 청년들의 욕구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 (기존 정책이 '이주'와 '정주'에 중심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실험'과 '교류' 등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음)
- 군정 각 분야와 부서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주류화를 촉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



JUMP-UP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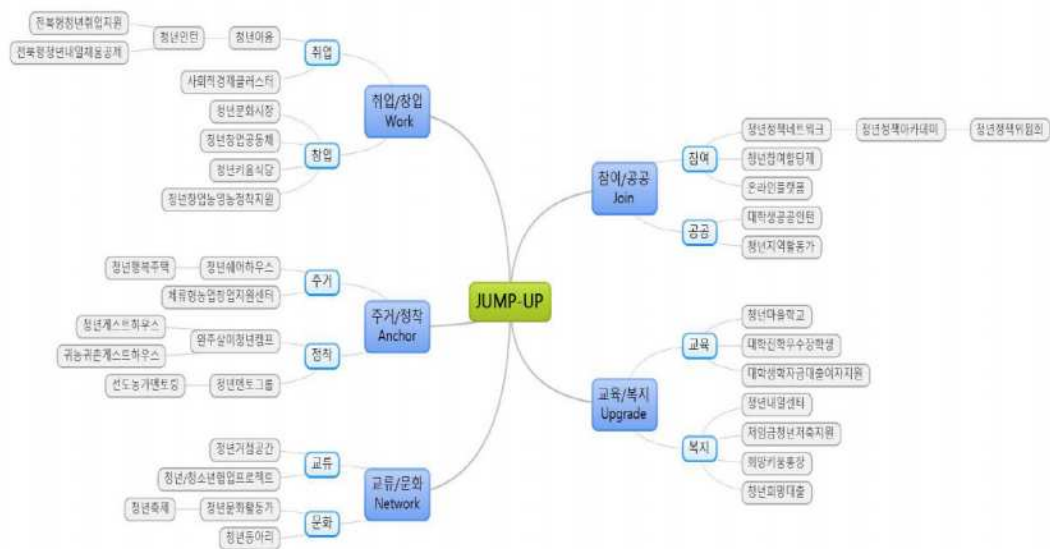
미션	청년이 행복한 완주,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				
비전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 조성				
목표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청년 정주환경 개선 지역활동 참여를 통한 주체적인 청년 인재 양성 사회적경제 인프라와 연계한 대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교류와 도전의 기회를 통한 창의적인 청년 문화 조성				
분야	Work 취업/창업	Anchor 주거/정착	Network 교류/문화	Join 참여/공공	Upgrade 교육/복지

JUMP-UP 프로젝트

분야	Work 취업/창업	Anchor 주거/정착	Network 교류/문화	Join 참여/공공	Upgrade 교육/복지
전략	고용창출 도전기회 확대	주거안정 정주환경 개선	협업촉진 청년문화 조성	군정참여 공익활동 지원	역량강화 자립기반 구축
실행과제	• 청년인턴 • 청년창업공동체 • 청년문화시장 • 전북형청년취업지원 • 전북형청년내일재능공제 • 청년자기주도탐색활동 (청년이음)	• 청년게스트하우스 • 청년쉐어하우스 • 완주골마을청년집 • 청년행복주택	• 청년거점공간 • 청년동아리 • 청년문화활동가 • 청년축제	• 청년정책네트워크 • 청년참여활동가 • 대학생공공인턴 (참여형대학생아르바이트)	• 청년내일센터 • 청년희망대울
	• 청년키움식당	• 청년연로그들	• 청년/청소년협업프로젝트	• 청년정책위원회 • 청년정책아카데미 • 청년지역활동가 • 온라인플랫폼	• 저임금청년저축지원 • 청년마을학교
	• 사회적경제클러스터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	• 귀농귀촌게스트하우스 • 선도농가연도링 • 채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 • 대학진학우수장학생 • 희망키움통장

JUMP-UP 프로젝트

- 취업/창업: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 일자리 제공 (청년일자리, 청년창업공동체, 청년이음 등)
- 주거/정착: 귀농귀촌 촉진 + 지역이탈 방지 (게스트하우스, 셰어하우스, 멘토링 등)
- 교류/문화: 지역간, 계층간 청년교류 활성화 (청년거점공간, 청년동아리, 청년축제 등)
- 참여/공공: 지역사회 참여 + 청년생태계 조성 (청년정책네트워크, 참여할당제, 청년정책위원회 등)
- 교육/복지: 청년의 성장을 통한 지역의 발전 (청년내일센터, 청년농담배움, 청년마을학교 등)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정책위원회 등

- 청년정책 특강 및 탐방
- 청년활동가 역량강화
- 청년정책 제안 및 심의
- 청년내일센터 설립 준비



“ 지역에서 만나들이 배우기, 연결되어 일하기, 더불어 살아가기
이행기 청(소)년의 지역기반 진로탐색 프로젝트, “로잉” ”

일과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배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삶을 모색 할 수 있는 기회!

I 대상 및 기간

- 대상 : 지역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삶을 모색하고 싶은 이행기 청(소)년
고등학교, 대학교(장소), 대학을 졸업 19세~24세 청(소)년 15명
- 기간 : 2020년 5월 부터 2022년 1월, 주 1~2회 활동 (총 12회 2년)
* 구체적인 일정 및 기간은 첨부파일 참고

II 세부프로그램

- 준비의 과정 : 그룹연토일, 특강, 독서토론세미나, 글쓰기세미나
- 탐색의 과정 : 장난감 마을 공동체탐방, 지역공동체 연대 활동
- 기획의 과정 : 팀프로젝트, 개발프로젝트, 기획포럼
- 실행의 과정 : 인턴십(취업), 개별 혹은 팀 창업



I 주관 |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 I 후원 | 삼선배움과나눔재단

* '로잉'의 의미. 첫째, 청(소)년들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진로를 찾아 노를 저는다는 '로잉(rowing)'을 의미한다.
둘째, 삶의 여정 또는 로컬(Local)을 의미하는 '로'와 계속 진행한다는 의미의 '잉'을 의미한다.

이행기 청(소)년 지역기반 진로탐색 프로젝트 '로잉'

- 성인이 되면 지역을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 왜 지역에서의 일을 탐색할 기회는 없는가?
- 고등학교 3학년 11명 + 20대 초반 청년 5명
- 넘나들며 배우기, 연결되어 일하기, 더불어 살아가기
- 독서, 탐방, 특강, 포럼, 프로젝트, 인턴십 등 2년 과정
-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 주관
- 삼선배움과나눔재단 지원
- 완주군, 고산고등학교(공립현대안학교) 연계



지역자산화 청년지원플랫폼 '다음타운(가칭)'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공유공간
- 탐색, 실험, 연결을 통한 청년의 정착과 자립 지원
-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선정
- 특수목적법인(SPC) '고산다움협동조합' 설립
- 공공문화커뮤니티 '씨앗[C.Art]' 등 3개 협동조합 참여
- 공유사무실, 공동작업장, 교육장, 회의실, 공유부엌, 게스트하우스 등
- 카페, 양봉, 로스팅, 수공예, 베이커리 등 입주 예정

제언

- 청년정책은 기존 정책이 해결하지 못한 청년세대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이다.
- 청년의 **성장, 자립, 참여,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년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청년에게는 **현재**를 위한 조건, **미래**를 위한 시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특히 농산어촌 지역) 청년들에게는 **자본, 인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청년정책은 '**이주migration**'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청년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 **사회적경제,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척박한 청년 문화는 낮은 삶의 질과 직결된다. 청년문화기획자 양성, 청년문화공간 **조성**, **청년문화** 공동체 육성 등을 통해 청년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제언

- 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기적인 정책 연계**가 중요하다. (ex.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행복주택, 청년캠프→한달살기→인턴십 등 단계별 지원, 쉐어하우스+인턴십+저축지원 등 병행 지원)
-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생활권 단위의 **청년거점공간** 등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은 다르다. 정착과 출산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기여나 봉사도 마찬가지)
-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자발적 청년생태계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 청년의 정착과 이주가 활발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멘토의 역할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이 있다. 청년을 지원하는 **시니어(멘토) 그룹의 발굴 및 지원**도 필수적이다.
- **10대 후반의 이행기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과 신증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40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단, 청년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문의

010-3719-7931 / documentary@gmail.com
blog.naver.com/cart3355



3.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3차 세미나 및 토론회

1) 연구모임 3차 세미나 및 토론회 개요

□ 개최 개요

- 일 시 : 2020. 12. 04.(금) 14:00 ~ 16:00
- 장 소 : 오누이센터(충남 홍성군 장곡면)
- 주 제
 - 충남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논의
 - 의성군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사업조성 사례 등 발표
- 참석인원 : 21명. 연구모임 회원 17명, 청년 농업인(5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분	개회(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14:10~14:30	20분	[발제 1] 충남 청년 농업인 지역정착 지원 방안	김기홍 (충남연구원)
14:30~15:10	40분	[발제 2] 의성군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사업조성	유정규 (이웃사촌지원센터장)
15:10~17:00	70분	전체 토론 및 논의	양금봉 의원

2) 발제 및 토론 내용

□ 발제 주요 내용

-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발표
 - 청년 농업인들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농업과 관련해서는 자금확보나 농지확보, 영농기술습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토지나 자금, 교육, 지역 융화 문제는 물론 거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주기반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경북 상주군 이안면 청년이그린협동조합에서는 지역의 폐교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 관련 시설, 문화, 복지, 주거 시설 등을 스스로 마련해 가고 있었음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청년마을 청년농촌정착플랫폼 활동에서는 면 단위 지역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축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공유지 확산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농사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음
- 충남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유공간’ 마련을 통해 농사 기반은 물론 청년 농업인들이 스스로 문화, 복지, 교육 시설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아우르는 청년 농업인 플랫폼 구축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임

○ 의성군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 사업 사례 발표

- 의성군에서는 지역의 소멸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도와 군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한 형태로 연계하여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이웃사촌지원센터라고 하는 지역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우선 면 단위에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도전을 해나가고 있으며, 지역 현장의 수요를 중간지원조직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이 정책으로서 끝나지 않으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민과의 소통 과정에도 일단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막대한 정책 자금이 시설에만 쏟아지고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많은 사례와는 다른 형태로 지자체의 새로운 도전에 기대가 모아지는 지역으로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종합 토론

○ 토론 내용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충남의 경우 광역 도 차원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별로도 마련되어 있으며 시군 차원에서 청년 농업인과 연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한 논의 필요. 특히 지역재생과 청년 농업인을 융합해 가는 방안에 대한 구체화 작업 필요

- 청년들이 청년 사업에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소통 및 교육 관련 워크숍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는 각 지역이 처해있는 여건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의 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자율적인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류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청년들의 지역 유입 이후에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함
- 지역 관련 기관 가운데는 농협이 경제적인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한 농협의 지역내 역할 노력이 더 필요하며 함께 논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
- 지역 내에서는 청년 농업인은 물론 다양한 청년과의 교류 강화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는 일이 중요함
- 청년 농업인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청년들의 지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등 세부 지원 마련도 필요함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 정착 방안 찾아

내포 뉴스밴드. 2020.12.4



충남도의회가 농어촌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년의 지역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정착 방안을 찾기 위해 힘을 모았다.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를 맡은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4일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센터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모임 대표인 양금봉 의원과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충남 청년 농업인이 참석했다. 발표를 맡은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속되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1~2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고령농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자체의 중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 청년 농업인 TF팀 구성, 청년공유시설 지원, 청년 농업인 파머스마켓을 통한 유통 지원, 청년공유농장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협력해 연구모임의 연구결과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희 기자

□ 연구모임 3차 발제1 내용 : 김기홍 책임연구원(충남연구원) “충남 청년 농업인 지역정착 지원 방안”

충청남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토론회@홍성군 장곡면 오누이센터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2020. 12. 4 (금) 14:00~

충남연구원 김기홍
(kimkh@cni.re.kr)



<연구모임 경과 1_발족식 및 제1차 연구모임>

연구모임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 충청남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님)
- 연구모임 목적
 - 농업·농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
- 연구모임 구성: 도의원, 군의원, 전문가, 행정, 연구자, 청년 농업인 등 18명으로 구성
- 발족식 및 제1차 연구모임
 - 충남의 청년 농업인 영농 현황 및 실태 발표
 - 일시 : 2020. 5. 7 (목) 14:00 ~ 16:00
 - 장소 :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108호)



출처: MBS

<연구모임 경과 2_현장 탐방>

다른 지역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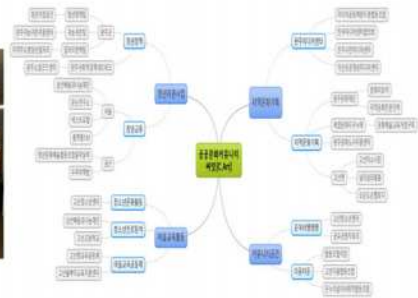
- 목적: 청년 농업인 지원 사례 현장 탐방_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방문
- 참석자: 총 21명 참석. 연구모임 등 15명(도의원 2명, 군의원 2명, 회원 7명, 의원실 4명),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청년활동가 2명,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청년기획팀장 등 공무원 3명
- 일시: 2020. 6. 30 (화) 10:00 ~ 17:40
- 장소: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출처: 충남신문



거점공간 림보책방



출처: 씨앗 안내 자료

3

<연구모임_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토론회>

청년 농업인 육성, 왜 필요한가?

- 계속되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문제
- 농업은 계속될 수 있을까?
- 농촌의 지역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을까?
-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 농업인이 필요하다!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
-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가능할까?

4

충남의 청년 농업인, 얼마나 있나?

구분	합계	25세 미만	25~29세	30~34세	35~39세
2019					
합계	6,965	382	900	1,823	3,860
천안시	603	30	74	155	344
공주시	522	46	63	147	266
보령시	501	37	60	130	274
아산시	413	26	63	126	198
서산시	514	25	76	121	292
논산시	738	33	89	210	406
계룡시	40	1	2	7	30
당진시	471	25	59	112	275
금산군	458	23	59	140	236
부여군	676	35	106	161	374
서천군	342	14	39	85	204
청양군	338	21	45	95	177
홍성군	557	24	72	140	321
예산군	485	32	63	115	275
태안군	307	10	30	79	188
2018					
합계	7,284	370	921	1,926	4,067
천안시	567	20	64	136	347
공주시	582	40	67	162	313
보령시	475	35	51	133	256
아산시	446	25	55	136	230
서산시	544	24	70	118	332
논산시	793	30	106	226	431
계룡시	46	0	1	12	33
당진시	517	25	71	133	288
금산군	483	25	67	134	257
부여군	710	37	109	197	367
서천군	349	10	33	93	213
청양군	366	30	48	99	189
홍성군	568	27	71	141	329
예산군	493	28	71	122	272
태안군	345	14	37	84	210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Agrix), 농업경영체 현황, 지역별 농업인 현황

청년 농업인, 실태는 어떠한가? (2020.5.7)

- ✓ 영농과정의 힘든 점은 자금확보, 농지확보, 영농기술습득!
- ✓ 농지, 주택, 자금 정보 획득 과정에서 지자체, 지역의 역할은?
- ✓ 농지확보와 관련한 지원은 가능한가?
 - 비승계창농은 농지를 구입하는 경향이 크다
 - 취득농지 금액은 1억3천만 원(비승계창농), 1억천만 원(승계창농)
 - 공공임대농지 확대? 조례안을 통한 지역 단위 실천 가능? 지역 내 조정 기능 가능?
- ✓ 소득이 적은 문제, 운용자금 및 설비투자자금 문제는?
- ✓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원은 가능한가?
- ✓ 지역 내 청년 농업인의 역할?
- ✓ 토지, 자금, 교육, 지역 융화, 거주 등 정주기반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 검토 필요

청년 농업인, 어떤 과제가 있나? (2020.5.7)

- <소득> 소득 증대의 어려움, 농산물 가격 문제, 사회적 농업 등 소득다각화 방안 마련 필요, 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농 중심 정책 필요
- <자금> 공정한 선정, 지원 제한 문제, 절차의 일원화, 거치 및 상환기간 확대
- <주택> 초기 청년은 주택 문제 해결 필요. 빈집 활용은 어렵기 때문에 농막규제 완화 등 현실적인 대안과 렌탈 혹은 이동식 주택 저렴하게 제공 필요
- <정주> 농업인 및 가족을 포함하는 농촌 복지, 특히 정주기반에 대한 문제 고려 필요
- <농지> 부재지주 문제, 농사짓는 땅 확보 필요, 충남의 유휴지 10만 평 활용 방안 필요, 임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접근, 농지은행 방식이 아니라 마을 토지 우선 활용, 8년간 양도세 면제를 위한 임대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농지법 개정, 토지 공동화 등
- <지역사회와의 관계>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로 보고 대응 필요, 지역융화가 좋아져 농지 확보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음, 농업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농민들 문제 접근 필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조 및 관계망 만들기 필요

7

- <네트워크> 지역융화, 일자리 문제 등 다루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한눈에 보이는 네트워크 필요, 청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필요
- <교육> 농촌지역 청소년을 지역에 남도록 하는 교육 필요, 교육 일정 등이 영농철과 겹치는 문제 발생, 농업 관련 전반적인 교육 부족, 농지 관련 교육, 친환경 농업 교육
- <통합적 지원 체계>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책 개편, 농업 자원 즉 농지, 주거, 유통, 재배기술 연계 필요,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 필요, 마을 만들기 차원의 종합적 접근 필요, 거시적인 측면, 단계적, 체계적 중장기 계획 필요
- <도의 역할> 도의 역할은 중앙정부 사업을 메꾸어주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며, 1~2년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 과정 필요,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 등 예비청년 육성을 통해 전 단계와 후속 사업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청년농업인 및 청년농부 육성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접근 필요, 고령농과 청년을 연계하는 지자체 중개 역할 필요, 농업농촌 청년 농업인 TF팀 구성 필요
- <이외> 투자금, 리스크에 대한 완충 장치 필요, 수당(농민수당) 개념 필요, 농사에 대한 자부심 중요, 소비자 운동 필요, 정보 불일치, 미래 청년들의 참여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인식 필요

8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 경북 상주군 이안면 청년이그린협동조합

➢ 2017년 청년들이 함께해보자는 취지로 협동조합 설립(청년 7명, 이장님, 새마을지도자1명)

➢ 2018년 폐교 활용한 공간 사업 시작(경북 농랜드 사업)

✓ 농랜드사업: 현재 청년농부 마을공동체 사업. 5억 원(보조 80%, 자부담 20%). 법인격 단체로 대표자는 청년(청년 주도형 사업 형태). 신청 자격은 청년 3인 이상 참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 이장님과 함께 자체적인 '1980 프로젝트' 시작+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공공기관)+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국비사업)+지자체+삼선재단(민간단체) 등



폐교 전경



➢ 청년협동조합 가치: 농락(農樂)

➢ 주요 활동: 협업농장(쌀 700평, 하우스 1,200평, 노지 1,000평 등), 지역농산물 판매(연매출 2천만 원), 폐교 공간활용사업(1층 작은도서관, 가공장, 목공방, 공방, 카페, 2층 게스트하우스, 청년사무실 등)

➢ 더 많은 공유공간(공유부엌, 숙소)이 필요하다!

9

❖ 충북 제천시 덕산면 청년마을 청년농촌정착플랫폼

➢ 간디학교(2002~)라는 교육 거점 활용, 사회적 경제 기반 아래 문화, 교육, 복지 활동 주도하면서 정주 기반 만들기 운동 진행

➢ 덕산면 지역활성화 활동을 위한 노력으로 빵 두레농장 빵집 시작, 마을목공소, 교육 위한 공부방, 청년 중심의 청년작업장 등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축, 다문화 관련 교육, 마을밴드, 전통시장살리기, 청년과 노인이 연계한 마을119사업(주민참여예산제) 등 진행

➢ 현재, 사회적 농업(2019~) 활용한 공유농장을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 도입(7명, 3년간 최저임금 지급, 청년농부 프로그램 등 진행)



제천시 누리마을 빵카페(좌), 사회적농업 블루베리 농원(우)



➢ 공유지 운동 확산: 농지트러스트 활동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공유농지(5개소)로 농사 진행 및 숙소 마련 노력

➢ 자원과 사람의 선순환 중요. '지자체의 홍보'보다는 '오면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해도 충분'

10

청년 농업인 지원, 무엇이 가능할까?

❖ 지원 방향

-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유공간' 마련을 통해 농사 기반은 물론 청년 농업인들이 스스로 문화, 교육, 복지 시설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제공하자! (정보공유와 네트워크까지)
- 청년 농업인 관련 지원을 아우르는 청년 농업인 플랫폼 구축 논의를 해나가자!

11

❖ 세부 사업

1) 청년공유시설 지원사업

➤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소 활용

- 현황 : 현재 낮에만 지도소 직원 상주
- 목적 : 오픈 카페형 회의실로 이용

➤ 농협강당 활용

- 현황 : 면에 하나씩 있음
- 목적 : 농민다방, 도서관 등으로 일부 리모델링, 모든 농촌주민 공간으로 활용

➤ 청년 농업인 공간 임대 지원 사업

- 목적 :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공간을 임대하고 용도는 다양
- 지원 내용 : 공모사업으로 진행, 리모델링비는 도시군 매칭 지원

12

2) 청년 농업인 파머스마켓을 통한 유통 지원 사업

• 목적:

- ① 상설 장터로 농산물 직거래
- ② 다른 시군과의 청년 농업인 간 교류
- ③ 생산자 · 소비자 교류

- 지원 내용: 2개군 이상 결합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

3) 청년공유농장 지원 사업

- 목적: 도 · 시군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 공유농장 조성
협업농장 및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등으로 활용

- 지원 내용: 시군 단위 시범사업으로 설치(2~3개소)

13

4) 폐교 활용

- 현황: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충남폐교자산 활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각 이외에 임대(대부)의 경우, 공공 목적의 경우에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두고 있어 현실적인 임대료로 보기는 어려움(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목적: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유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임대, 내부는 도서관과 카페, 목공실,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화 공간 등, 외부 운동장은 텃밭이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

• 전제 조건:

- ① 임대비: 공공의 목적인만큼 임대비를 대폭 낮추어 제공
- ② 규제완화: 농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등 도의 관련 실과와 협의 필요
- 지원 내용: 내외부 리모델링비 지원 필요(도시군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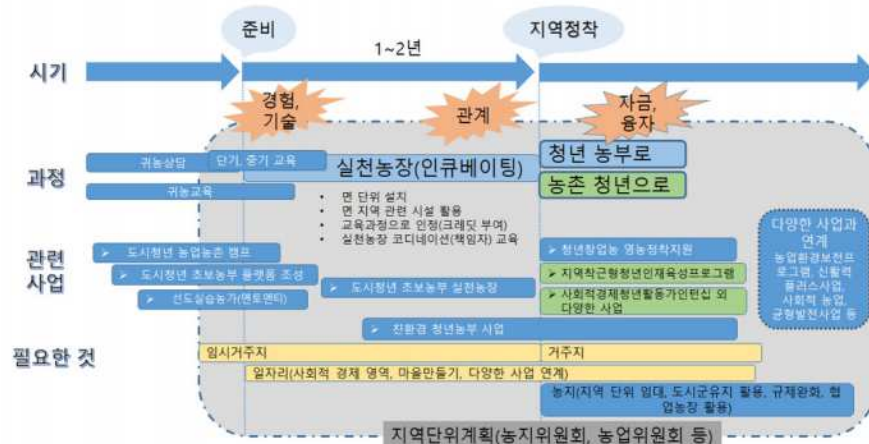
14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 누가 해야 하나?

- **도와 시군의 역할은?** 도시군유지, 공공시설 등 활용
- 도, 시군에서는 대체 누가? (농정과? 청년정책과? 농업기술원?)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경북: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청년 농업인 관련 사업 담당. 경북연구원 내 '청년정책아카데미'라는 청년정책연구기관이 청년 농업인을 포함하는 청년 관련 정책 담당.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긴밀하게 협조,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새로운 인력 맞을 준비, 지역에서 하자!(땅을 내놓을 사람도, 지역 자원을 내놓을 사람도 지역에 있다) 지역단위 계획 + 중간지원조직 등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일본, 사람농지플랜)
- **주체는 다시 청년!** 그 주도적인 역할은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자율적으로 주고 스스로 꾸려나가게 믿어보자!

15

충남 청년 농업인 정착 과정 로드맵



16

감사합니다!

- 연구모임 3차 발제2 내용 : 유정규(이웃사촌지원센터장) “의성군 지역재생전략과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사업조성”

[충남] 청년 농업인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

의성군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재생전략과 통합적 청년정착지원사업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2020. 12. 04.

유 정 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 경제학박사)

- 목 차 -

- 1. 의성군 현황
-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 4.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주요내용
- 5. 성과와 과제

1

의성군 현황

1. 의성군 현황

4

1) 의성군 위치



이웃사촌지원센터

1. 의성군 현황

5

2) 의성군 교통망



이웃사촌지원센터

1. 의성군 현황

6

3) 의성군 행정구역과 지역적 특성

- 1읍(의성읍), 17면, 400개 행정리, 1,559개 반

서부생활권

- 인구 : 17,384명
- 중심지 : 안계면
- 미작 위주 1모작 (동부권에 비해 다소 낙후)



- ▶ 의성 서부권역 중심지 [서의성 IC 인접]
- ▶ 권역 중심지로서 발전가능성 高

동부생활권

- 인구 : 35,526명
- 중심지 : 의성읍
- 마늘, 고추 등 고소득작물 (서부권에 비해 환금작물 많음)

이웃사촌지원센터

1. 의성군 현황

7

4) 의성군 농특산물



이웃사촌지원센터

1. 의성군 현황

8

5) 의성군 인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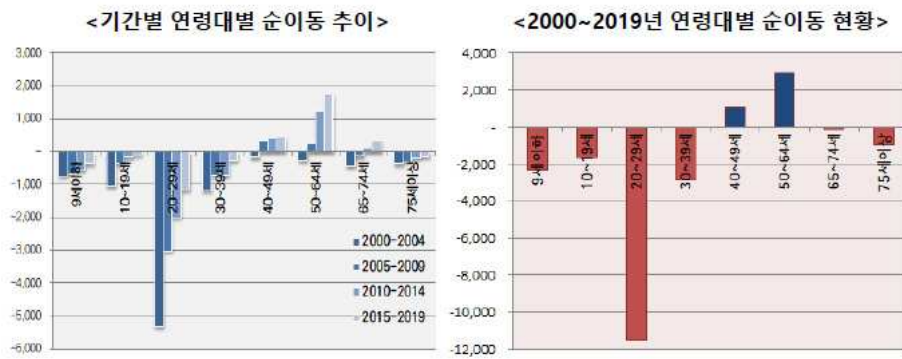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총인구	76,327	64,457	58,832	54,477	52,595
유소년인구수[명] (14세 미만)	9,358 (12.3%)	6,284 (9.7%)	4,533 (7.7%)	3,467 (6.4%)	3,114 (5.9%)
생산가능인구수[명] (15~64세 미만)	51,952 (68.1%)	41,177 (63.9%)	35,644 (60.6%)	31,357 (57.6%)	28,476 (54.1%)
고령인구수[명] (65세 이상)	15,017 (19.7%)	16,996 (26.4%)	18,655 (31.7%)	19,653 (36.1%)	21,005 (39.9%)
청년인구수[명] (20대~30대)	18,663 (24.5%)	13,665 (21.2%)	10,666 (18.1%)	7,964 (14.6%)	6,921 (13.2%)
출생자수[명]	506	330	315	249	274
사망자수[명]	1,025	870	773	860	906
합계출산율[%]	1.34	1.20	1.45	1.51	1.76

이웃사촌지원센터

1. 의성군 현황

9

5) 의성군 연령별 인구이동 추이



- 순유출 지속 · 유출폭 감소 → 젊은 층의 **지속적 유출**과 장년층의 **순유입 증가**
 - 20~30대 순유출 심각 : 학업, 지역 내 일자리 부족, 농업에 대한 전망 불투명, 다양한 문화·휴식공간 부족, 문화예술 향유기회 의 제한, 자녀 양육여건의 열악 등
 - 40~60대 순유입 증가 : (내부요인)생활기반 형성으로 지역을 떠나야 할 필요성 감소, 각종 네트워크에 편입으로 지역을 떠나기 곤란 + (외부요인)은퇴 후 귀농·귀촌 인구의 꾸준한 증가 → (유출인구 < 유입인구)

이웃사촌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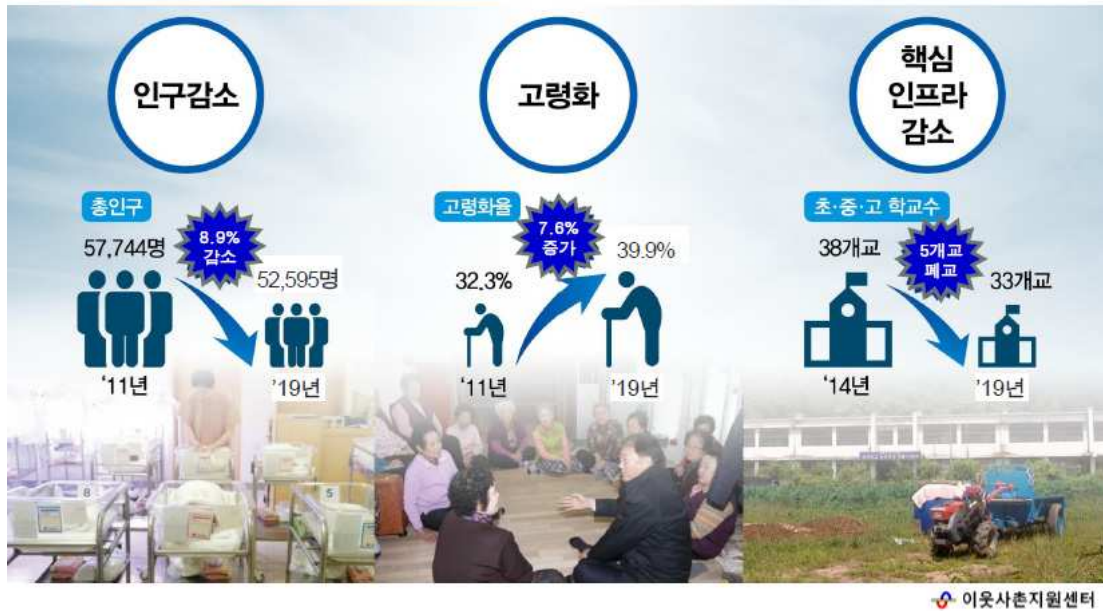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11

1) 의성군의 현실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12

2) 의성군 지속가능성 위협요인



청년인터뷰

- 시골청년 ○○○군
“지방에는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요.”
- 도시청년 ○○○양
“농촌에서 살면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아요.”

일본사례

- 지방창생전략(15~) : ‘마을, 사람, 일자리’가 핵심
- 가미야마정 : 70년만에 소멸위기 산골에서 부활
– 청년사업가들이 창업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이웃사촌지원센터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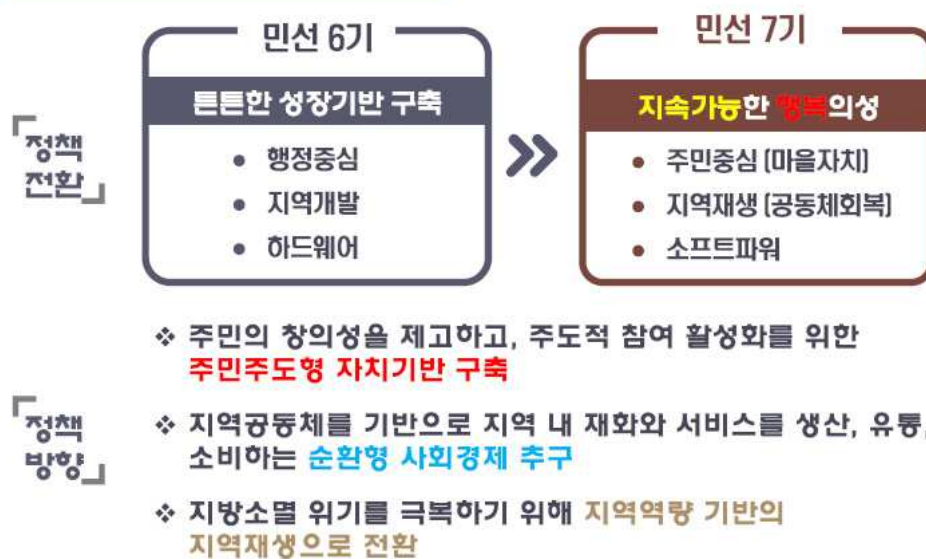
3) 의성군 지역재생의 핵심전략(1)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14

3) 의성군 지역재생의 핵심전략(2)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15

4) 의성군 지역재생 전략의 실현방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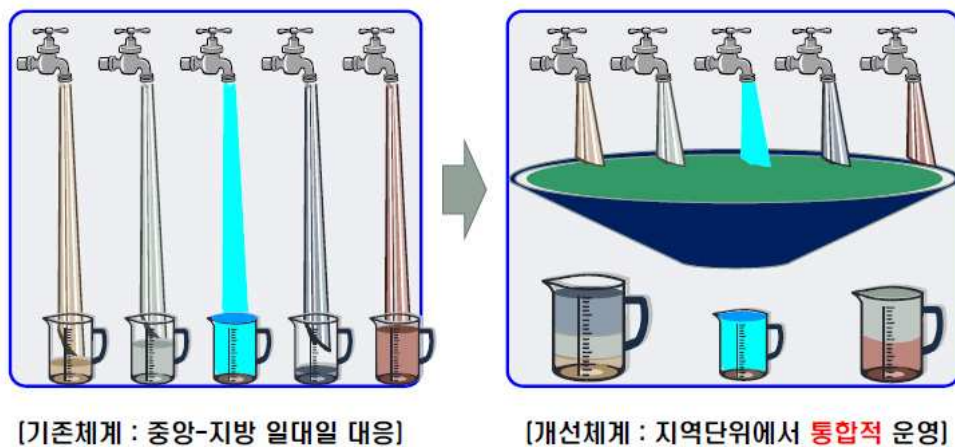


2. 의성군의 지역재생 전략

16

4) 의성군 지역재생 전략의 실현방안(2)

“多 부처사업의 융복합 (=갈때기) 개념도”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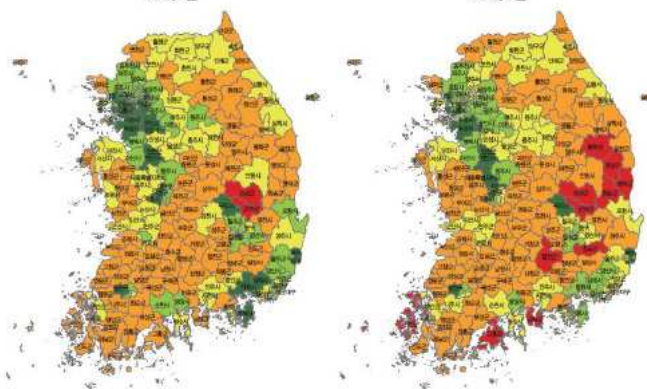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18

1) 추진배경(1) : 경북도

2013, 7월

2018, 6월



- 지역소멸위험지수(增田寛也)
= 20~39세 여성인구 수/노인인구 수

1.5 이상	■
1.0 ~ 1.5 미만	■
0.5 ~ 1.0 미만	■
0.2 ~ 0.5 미만	■
0.2 미만	■

- 지역소멸 고위험지역
= 2013년 2개 → 2018년 11개

- 도내 저출생, 고령화 심화로 생산인구 감소
 - 경북도의 합계출산율, 지속적으로 하락 : 2000년 1.56명 → 2010년 1.37명 → 2017년 1.25명
 - 군지역 고령화를 28.1% : 초고령사회에 진입 → 의성군 38.4%
- 인구유출 증가로 지방소멸 위기 심화
 - 연평균 6천명의 청년이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타 시도로 전출 : 전체의 90%가 수도권으로 유출
 - 30년내 소멸위기의 지자체 Top 10 중 6곳이 경북 : 소멸고위험지역 11곳 중 7곳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19

1) 추진배경[2] : 의성군

- 의성군의 소멸위험지수 : **0.151**[2018.6] < 2013년 **0.199** / 전국 소멸지수위험 1위

시도명	시군구명	2013년 7월				2018년 6월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전체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이상 인구	소멸위험 지수
경북	의성군	56,531	3,826	19,181	0.199	53,166	3,112	20,567	0.151
전남	고흥군	70,837	4,897	24,384	0.201	66,284	4,108	25,521	0.161
경북	군위군	24,125	1,613	8,135	0.198	24,386	1,522	9,008	0.169
경남	합천군	49,958	3,649	16,421	0.222	46,538	2,935	17,145	0.171
경남	남해군	47,522	3,563	15,346	0.232	44,386	2,845	15,931	0.179
경북	청송군	26,395	1,881	8,067	0.233	25,874	1,642	8,921	0.184
경북	영양군	18,262	1,325	5,705	0.232	17,482	1,137	6,074	0.187
경북	청도군	43,747	3,321	12,987	0.256	43,171	2,913	15,008	0.194
경북	봉화군	33,962	2,539	10,117	0.251	33,177	2,171	11,012	0.197
경북	영덕군	40,255	3,107	12,362	0.251	38,381	2,617	13,248	0.198
전남	신안군	44,157	3,122	13,362	0.234	41,960	2,778	14,022	0.198

<고령화율>

- 의성 : 38.7%
- 고흥 : 38.4%
- 군위 : 36.9%
- 합천 : 36.8%
- 남해 : 35.9%
- 청도 : 34.8%
- 영양 : 34.7%
- 영덕 : 34.5%
- 청송 : 34.5%
- 신안 : 33.4%
- 봉화 : 33.2%
- [안계 : 34.3%]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0

2)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지방소멸 극복 + 농촌 혁신성장 모델 제시		
목표	일자리와 이웃사촌 공동체 정신이 함께 갖추어진 청년이 돌아오는 시범마을 조성		
추진 전략	현지자원 기반 발전전략 수립	청년주민 등 수요자 주도 결정	신구 생활거점 동반성장
추진 분야	1. 기업유치,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2. 매력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3. 복지, 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		
	4. 마을공동체 강화		
	5. 청년 유인 마케팅		
추진 전략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	국비 공모 및 지특회계 집중 확보	산·학 연계 추진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1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내용 요약 (계획안)

분야별 추진

단계별 추진

1) 기업유치, 창업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반려동물분화단지 조성
- 창농, 문화예술창업 지원(스마트팜, 안계청년 허브 등)
- 일자리 창출여건 조성(중간지원조직 설립, 창업지원사업 연계)

2) 매력있는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

- (컨셉) 문화, 예술이 있는 디자인, 에너지절약 설계 및 국제 건축물 인증 추진
- 기존 마을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확보
- 신규단지는 단계별 조성
- 안계지역 도시재생 추진(안계 K-Classic 추진)

3) 복지, 문화 등 생활여건 개선

- (의료) 기존 인프라 내실화를 통한 필수의료체계 구축
- (출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산후 조리원
- (보육) 국공립 어린이집, 마을돌봄터 확대
- (교육) 경북형 혁신학교 지정 검토

4) 이웃사촌 공동체 강화

- (주민복지)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마을특화사업비 지원
- 청년, 주민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의성서포터즈' 운영
- 청년 및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기존 주민 지원사업 추진(지역출신청년 U-turn 우선지원 등)

5) 청년 유인 마케팅

- 핵심 청년 활동가 그룹 유치활동 전개
- '청년 일자리 특구' 지정을 통한 청년 중심도시로 육성

(※ 이 내용은 당초 계획 안이며, 추진과정에서 정책환경과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음)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2

4)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념도

“일자리, 주거, 복지가 두루갖춰진 이웃사촌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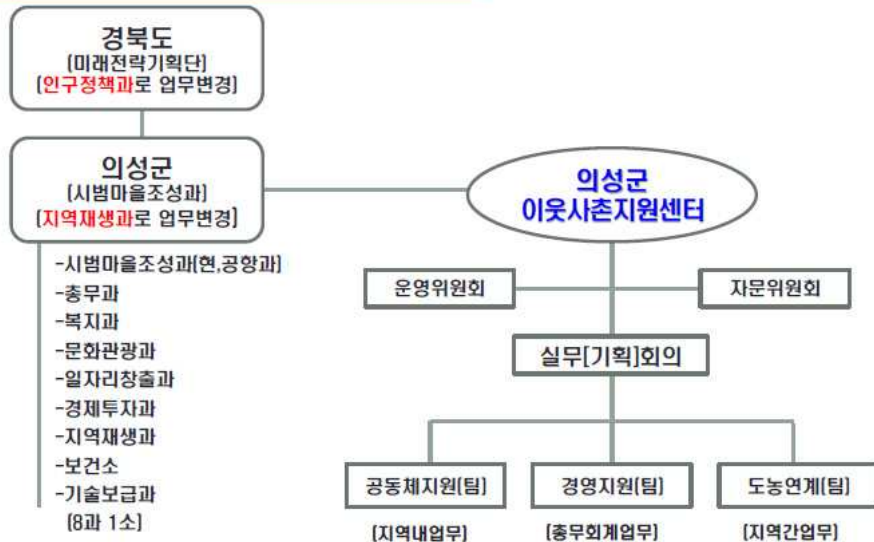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3

5) 추진체계(1) : 도 - 군 - 중간지원기관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4

5) 추진체계(2) : 의성군



<업무부서의 변경>

2020년 9월 11일, 시범마을조성과(課)는 '공향과(課)'로 개칭되고, 시범마을조성 관련업무는 기존의 3개계(係)에서 2개계(係)로 개편, 지역재생과로 이관되었음

→ 지역재생 차원에서 관련업무를 일원화시킴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5

6)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방향[1] : 청년일자리창출 방향

“의성 서부권역 3대 미래 먹거리 산업주체 육성”



스마트 농업 · 도시재생

- 청년농부 육성
- 스마트팜 단지 조성
- 안계면 도시재생



지역맞춤 청년창업

- 지역주민 + 외부청년 주도
- 지역자원 활용한 의성형 창업
- 현지 사회적 기업화



반려동물 산업

- 의성 펫월드 운영
- 반려동물 교육 · 훈련시설
- 반려동물 산업단지 구축

혁신인재발굴 및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6

6)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방향[2] : 주거단지조성 방향

“주거불안 해소, 안정적 청년 보금자리 마련”



단계별 조성 방식



이웃사촌지원센터

3.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7

6)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방향[3] : **생활여건 개선 방향**

“생애주기에 맞춘 **이웃사촌복지체계** 구축”



3.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8

6)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방향[4] : **지원시스템구축 방향**



3.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의 개요

29

가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배치도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1

1) 일자리 창출[1] : 청년창업지원

[1] 시범마을청년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위치) 의성군 서부권역(7개면)
- (대상) 주민 + 외지청년 팀으로 구성(2명 이상)
- (지원) 팀당 최대 1억원 지원 (2년이상 정주조건)
- (내용) 창업사업화 자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
- (선정) 총12팀 (19년 8팀, 20년 4팀, 21년 3팀)
- (비고) 기존상권과 충돌되지 않는 사업아이템 우대



[2]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개요

- (위치) 의성군 전역
- (대상) 주민별, 외지청년별로 모집 (1명 이상)
- (지원) 1인당 연 3천만원 지원 (최대 2년간 지원)
- (내용) 창업사업화 자금, 점포 리모델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
- (선정) 총 13팀(18년 5팀, 19년 9팀)
- (비고) 의성군 전역 가능 / 안계 4팀, 비안 1팀 선정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2

1) 일자리 창출[2] : 청년창농지원

[1] 스마트팜 조성

사업개요

- (위치) 안계면 시안리 일원
- (기간) 2019년 ~ 2021년 (3년간)
- (내용) 부지확보, 기반조성, 스마트팜 조성,
 - 기반조성 : 딸기육묘장(4월), 스마트팜(9월), 선별출하장(12월)
 - 가공체험장 및 관리연구동(21년)
 - 창농지원 : 창업실습훈련, 전문가 컨설팅, 자금지원 등
- (비고) 2019년 29명, 20년 30명 → 21년, 지속 모집



[2] 팜문화빌리지 조성

사업개요

- (위치) 안계면 양곡리 491-1 일원
- (기간) 2019 ~ 2020년 (2년간)
- (내용) 공동작업장, 개별공방, 홍보 및 전시관, 편의공간
- (비고) 2020년 6월 공사발주, 12월 준공예정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3

1) 일자리 창출[3] : 반려동물산업육성

[1] 의성펫월드 조성

사업
개요

- (위치) 안계면 안계길 255-13
- (기간) 2017년 ~ 2020년 (4년간)
- (내용) 방문자센터, 펫카페, 실내의 도그런, 도그풀장, 캠핑장 등
반려동물관련 복합시설 운영
- (비고) 펫월드 개장(6월), 펫카페 운영(7월)



[2] 반려동물산업단지 조성

사업
개요

- (위치) 의성펫월드 주변 ※봉양면 일원 대체지 물색
- (기간) 2019 ~ 2023년 (5년간)
- (내용)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기반창출을 위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단지 조성
- (비고) 반려동물문화센터(펫월드)와 연계 추진 → 부가가치 창출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4

2) 주거단지 조성(1) : 청년주거지 조성

[1] 금수장 리모델링

사업
개요

- (위치) 안계면 용기리 557-27 일원
- (기간) 2019년 ~ 2020년 (2년간)
- (내용) 금수장(구 여관)을 리모델링 후 청년주거공간 제공(7실)
- 1층(공용주방, 커뮤니티 공간), 2~3층(주거공간, 휴게공간)
- 별관(헬스장, 작은 영화관 ← KT협력 : 5G, VR체험시설 등)
- (비고) 공사완료 → 11월 이후 운영 예정



[2] 청년주거단지 조성

사업
개요

- 안계면 용기리 475-1
- (기간) 2019 ~ 2020년 (2년간)
- (내용) 스틸하우스 18동(11평/동), 커뮤니티센터 1동(39평)
※ 포스코 사회공헌사업과 연계 추진
- (비고) 10월 공사완료 → 11월 이후 운영 예정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5

2) 주거단지 조성[2] : 청년주거단지 조성

[1] 신규주거단지 조성

사업
개요

- (위치) 안계면 일원
- (기간) 2020년 ~ 2023년 (4년간)
- (내용) 신규주거단지 단계적 조성
- (1단계)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 140호 건설 예정
- (비고) LH 책임시공 (2021년 6월 착공 예정)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6

3) 생활여건개선[1] : 청년문화공간 확충

[1]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
개요

- (위치) 안계면 용기리 일원
- (기간) 2020년 ~ 2023년 (4년간)
- (내용) 지역활력증진, 주거생활환경개선, 공동체 살리기 지원
- (비고) 부지매입(공공임대주택, 소공원, 주차장 등)
도시재생대학(코디양성교육) 운영



[2] 안계행복플랫폼 조성

사업
개요

- (위치) 안계면 용기리 843-5번지 일원
- (기간) 2019 ~ 2022년 (4년간)
- (내용)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선정
- 여가문화, 만남교류, 복지, 시장점포, 공공서비스 공간 등
- (비고) LH 공기관 위탁 공사 시행계획(22년 12월 완료예정)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7

3) 생활여건개선[2] : 의료·교육여건 개선

[1] 3대 필수의료체계 내실화

사업개요

- (위치) 영남제일병원 - 시설보강 및 리모델링 병행
- (기간) 2020년 ~ 2023년 (3년간)
- (내용) 외래산부인과 및 응급의료기관 활성화(20년)
→ 소아청소년과 운영(21년) → 분만산부인과 전환(22년)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23년)



[2] 경북형 미래학교지정

사업개요

- (위치) 안계초등학교
- (기간) 2021 ~ 2023년 (3년간)
- (내용) 교육시설 개선 및 창의적 사고 등 교육과정 혁신
- (비고) 예비미래학교 선정(3월) → 미래학교 지정(21년)
교실 리모델링 공사(8월), AI 스쿨 기자재 구축(9월)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8

4) 공동체활성화 : 주민주도 리빙랩 → 자치역량 강화

[1] 행복마을자치사업

사업개요

- (위치) 의성군 전역
- (기간) 2019년 ~
- (내용)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단계별 지원)
- 마을별 1단계 3백만원, 2단계 25백만원, 3단계 공모사업 연계
- 교육·실천 연계 액션러닝 프로그램 → 주민자치역량 강화
- (비고) 1단계(19년 18개 → 20년 31개마을), 2단계(12개 마을)



[2] 주민소확행문화프로그램

사업개요

- (위치) 의성군 서부권역(7개면) → 의성군 전역으로 확대
- (기간) 2020 ~ 2021년 (2년간)
- (내용) 주민 주도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마을주민공동체 활동, 동아리 활성화 등
마을 문화자치의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39

5) 청년유치기반조성 : 청년감성 대응

(1) 의성 살아보기

사업개요

- (위치) 의성군 서부권역(7개면)
- (대상) 도시청년 30명(총 2기수) 및 청년예술가(18명)
- (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활동비 지원 → **청년정책의 방향 전환**
 - 청춘구행복동: 주민교류 프로그램 및 행사, 지역사업 발굴
 - 3단계 프로그램 추진, 6+4 주간 단체 합숙
 - 예술가일촌맺기: 예술창작활동 및 주민대상 예술교육프로그램
 - 참여마을(6개) 매칭, 마을별 1~3개월 예술가 거주



(2) 청년예술캠프

사업개요

- (위치) 의성군 서부권역(7개면)
- (기간) 2019년 ~ 2020년 (2년간)
- (내용) 지역주민, 청년창작가 공동 문화예술거리 조성
- (비고) 19년 유희공간(안성목욕탕) 을 예술공간으로 활용
→ 20년 전통시장 기억재생 프로젝트 사업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40

6) 중간지원조직 운영(1)

(1) 이웃사촌지원센터 : 공설민영

사업개요

- (기 간) 2019. 3월 ~
- (구 성) 5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2, 팀원)
- (역 할) :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원**
 - 지역공동체체 활성화: 원탁회의, 주민역량강화(새꿈학당)
 - 주민동아리운영, 주민아이디어경진대회, 행복마을자치사업
 - 청년유치지원: 청년활동가관리, 지역청년활동 촉진
 - 기타: 시범마을 위탁사업, 주민자치 지원, 지역발전 컨설팅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공설공영

사업개요

- (기 간) 2020. 1월 ~ 2023. 12월 (4년간)
- (구 성) 3명 (센터장, 총괄코디네이터, 팀원)
- (역 할)
 - 주민의견조정, 주민역량강화(재생대학 운영),
 - 도시재생 홍보, 주민참여활성화지원, 주민협의체 운영 등



이웃사촌지원센터

4. 2020년 이웃사촌청년시범마을조성사업 추진내용

41

6) 중간지원조직 운영[2]

[3] 미래교육지원센터 : 공설민영

사업개요

- (기 간) 2020. 4월 ~ 2023. 12월 (4년간)
- (구 성) 4명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파견교사)
- (역 할)
 -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
 - 교사,학생,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4] 이웃사촌복지센터 : 공설민영

사업개요

- (기 간) 2020. 4월 ~ 2021. 12월(2년간)
- (구 성) 4명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2)
- (역 할)
 - 지역주민조직 활성화, 지역주민 공동체 복지교육
 -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 위기가구 통합연계 지원 등



이웃사촌지원센터

5

성과(?)와 과제

5. 성과(?)와 과제

43

1) 성과(1) : 정량적 성과

● 유입청년의 증가

- 유입청년의 증가 : 2019~2020년, 108명(20년 9월말 현재, 81명 전입) → 164명 활동 중
- 청년창업의 증가 : 10곳 → 이웃사촌일자리사업 8곳, 도시청년시골파견제 4곳
- 지역탐색 (의성 살아보기)청년의 증가 : 1기 15명(75명 신청), 2기 15명(115명 신청) → **1기 9명, 지역거주**

● 지역인재의 육성

- 새꿈학당(=마을살림꿈양성)
 - 2019년 : 행복마을만들기과정, 6차산업화과정 → 각각 3시간, 8주 과정, 2박3일 합숙교육 → 53명 수료
 - 2020년 : 행복마을만들기과정, 사회적경제과정 → 각각 3시간, 12주 과정 → 59명 수료
- 마을교육공동체 플래너 양성 : 23명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주체
- 도시재생 현장코디 양성 : 15명 → 코디 공모사업 참가자 5명

● 기타

- (교육) 마을학교 운영 : : 6곳 → 동부 4곳(단촌, 점곡, 춘산, 옥산), 서부 2곳(안계, 단밀)
- (복지) 시범마을 : 2곳 → 동부(철파), 서부(팔동)
- 행복마을자치사업 : 키움과정(1년차) 11개마을, 채움과정(2년차) 6마을
- 인프라구축
 - 청년주거지(18가구), 게스트하우스(7실), 출산통합지원센터, 스마트팜(1식),

 이웃사촌지원센터

5. 성과(?)와 과제

44

1) 성과(2) : 정성적 성과

● 지역활력 증진

- 지역 내 청년활동공간의 이용율 증가: 예)청년과짜방 이용증가 → 살아보기, 마을학교
- 청년 창업상가 활성화 : 예) 달빛레스토랑, 오늘손만두, 호피홀리데이 등
- 지역 내 예술문화활동 증가: 예) 예술가일촌맺기 → 6개 마을(벽화, 연극, 사진, 무용, 글쓰기

●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역주민의 동아리 활동 증가
 - 2019년 : 청년동아리 8개 →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전개
 - 2020년 : 주민동아리 10개 → 자발적 활동조직 결성 → '이웃사촌의 날' 행사 추진
- 마을의 자발적 주민활동 증가: 예) 비닐쓰레기 안태우기,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꽃길만들기 등등
-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 증가: 안계면 주민자치회 교육 참가 신청자 증가 → 48명 정원에 105명 신청

● 기타

- 지역 이미지 제고 : TV, 신문, 잡지, 각종 SNS 등 소개 빈도수 증가
- 중앙정부의 관심 증가 : 5부처 협력사업, 농특위 청년분과 → 현장 간담회개최
- 지역 외부로부터의 벤처마킹 방문 증가 : 춘천, 봉화, 영주, 함양, 공주, 금산
- 지역활동에 대한 전문가 관심 증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충남연구원, 대경연구원 등

 이웃사촌지원센터

5. 성과(?)와 과제

45

2) 성공(?) 요인

● 사업추진 주체 측면

➢ **추진주체의 의지와 추진력** : 의사결정권(단체장)의 강력한 의지+행정시스템 구축 → 일관성 있는 추진 가능

● 사업추진방식 측면

- 관련사업의 **통합적 추진** : 일자리 창출, 주거공간 구축, 생활여건개선(의료,출산·보육, 복지, 교육 등)
- 지역의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사업의 선정 및 지원 : '집토끼'로부터의 저항 예방 및 해소
- 기존 지역주민과 유입청년 활동의 연계 지원 : 유입청년의 초기 진입 애로 해결 노력
- 생산거점은 안계, 소비자는 전국적으로 !! : 지역 내 소비창출의 한계 극복방안 마련

● 정책대상에 대한 접근방식 측면

-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 자유로운 영혼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을 바라고 지역을 찾는 청년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의성에 와서 살고 싶은 청년 찾기
- **유연한 정책 추진** :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지원 → 청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스킨십 용이 → 청년들에 지역에 와서 '비밀 언덕'이 필요함

● 지원시스템 측면

- 행정 내 지원시스템 구축 : 정책 추진동력 강화
 - 광역(경북도) 단위 : (초기)전략기획단 내 이웃사촌팀 → (개편) 아이여성행복국 인구정책과 이웃사촌시범마을팀
 - 기초(의성군) 단위 : (초기)시범마을조성과 → (개편) 지역재생과 시범마을기획계, 시범마을조성계
- 중간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 통합적 지원 → **정책의 끝내기 구축**
 - 행정부서(8개과 1개소) 간 협업과 통합적 추진 유도 → 각 부서에 분산된 업무의 통합 지원, 시너지 효과제고
 - 사업간 통합, 사업추진 공간(=서부권역)의 통합적 접근 → 사업의 효과를 서부권역 전체로 확산

 이웃사촌지원센터

5. 성과(?)와 과제

46

3) 반성과 과제

- 종합적 기본계획(grand plan) 완비
- 사업별 예산확보 방식의 한계 개선
- 정책간 연계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설계와 유연한 추진방식의 도입
- 창업 위주 청년지원정책의 전환
- 행정의 관행적인 업무추진방식의 개선
-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동의 확보 노력 강화

 이웃사촌지원센터

5. 성과(?)와 과제

47

4) 외부 도시청년단체에 대한 기대와 요청

- 지역을 고민하고, 지역을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지속되는 한
지역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인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살고 싶은 사람이
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
- 이미 전원회귀의 문명 전환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읽고, 전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어 간다면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 한국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성의 노력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웃사촌지원센터

감 사 합 니 다

유정규 :
yu0367@hanmail.net
010-6399-0367

4. 연구용역 발주 :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

1) 연구 개요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충남 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8%로 전국 평균 15%보다 높으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농촌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 유입이 절실한 실정임
- 특히 유입된 청년농업인들이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건지소가 중심이 되어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연구결과가 청년농업인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특히 연구결과를 15개 시군의 보건지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충남 의회가 중심이 되어 도청 및 시군 관련 부서들과 워크숍을 진행하여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과업기간 : 2020. 7월 ~ 2020. 10월 (3개월)

2) 연구 내용

□ 연구 주요 내용

- 보건지소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
-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지소 팀제 운영 및 인력 강화 방안
- 청년농업인과 보건지소가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운영 방안 수립

□ 연구 세부 내용

- 보건지소 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서비스 개발 및 운영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읍면에 설치된 보건지소가 청년농업인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보건지소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 보건지소 중심의 통합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운영 방안
 - 통합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복지 조직 간의 연계 방안
-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지소 팀제 운영 및 인력 강화 방안 : 보건지소가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케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의 조직 및 소속 인력 개편 방안
 -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보건지소 팀제 운영 방안
 - 보건지소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 역할 재정립
 - 방문간호 인력 재편성 방안
- 청년농업인과 보건지소가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케어 운영 방안 수립 :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이 보건지소와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안 수립
 - 마을별 지역사회 보건복지안전망 구축 방안
 - 마을별 건강 취약계층 발굴 및 돌봄 서비스 지원 방안
 -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헬스스카우트 제안

□ 연구모임 활동 언론보도

양금봉 의원, 대표 연구모임 16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청년농업인·보건지소 중심 통합돌봄 방안 제시"

프라임경제, 2020.10. 16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지역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 의원)은 16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대표인 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더불어민주당)과 각 시·군 보건소장 및 방문보건업무 담당팀장, 4H 청년농업인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는 "충남형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는 공중보건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 보건복지서비스 연계와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기관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연계형 및 기능전환형에 해당되는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방문보건 인력을 보강 및 재배치(팀 구축)하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행정안전부 주관)을 위해 채용된 간호사를 읍·면사무소가 아닌 보건지소 방문보건팀에 배치해 공중보건의사의 지도 관리를 받으며 방문보건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봉 의원은 "청년농업인 중 헬스 스카우트를 선발해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웃,

마을의 건강문제를 발굴하는 마을 건강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등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 인구 유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보건정책과와 협력해 관련 지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하는 등 연구용역 결과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영태 기자

III

**연구모임 활동
성과 및 제안**

Ⅲ. 연구모임 활동 성과 및 정책 제안

1. 연구모임 활동 성과

- 도의회 차원의 연구모임 운영을 통한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계기 마련
 - 의회를 중심으로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관련 전문가, 지역 활동가, 청년 농업인 등이 함께 충남의 청년 농업인이 처한 현장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하며 함께 논의하는 연구 활동 추진
 - 충남의 청년 농업인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실제 필요한 세부 사업 목록까지 제시함으로써 지원 정책 방안 구체화 작업 실시
 - 연구 성과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도 및 시군의 정책 반영 유도

- 타지역의 청년 농업인 지원 사례 현장 방문
 - 충남을 넘어서 전국적인 단위에서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있는 전북 완주군의 중간지원조직인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및 완주군 지자체 지원 현장을 방문하여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 도입 가능성 타진
 - 세부 실천 사업 도입과 관련하여 연구모임 회원간 공감대 형성 및 완주군 관계자와의 의견 교류

- 토론회를 통한 현장의 청년 농업인 의견 수렴 및 지원 방안 논의
 - 의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 현장의 청년 농업인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구체화 방안 논의

- 특히 세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성군 사례 발제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재인식 및 현장의 청년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 토론으로 청년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인식 확산 계기 마련

2. 정책 제언

1)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플랫폼 구축

□ 지원 방향: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아우르고,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농업인 플랫폼 구축 필요

-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식량원예과)과 농업기술원(청년 농업인, 후계농업인, 귀농귀촌 관련)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 필요
- 이외에도 농협이나 농어촌공사 등 지역내 다양한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 필요

□ 세부 내용

- 청년 농업인 플랫폼 논의를 진전하기 위한 농업농촌 청년 농업인 TF팀 구성 필요
- 청년 농업인 플랫폼 기능은 구체적으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차원에서 마련하는 방법이 가능
- 혹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마련된 곳에서 관련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가능

2) 청년 농업인을 위한 공유공간 마련

□ 지원 방향: 청년 농업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유공간’ 마련을 통해 청년 농업인들의 수요에 맞게 농사는 물론 문화, 교육, 복지 시설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청년 농업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세부 사업

○ 청년공유시설 지원사업

(1)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소 활용

- 목적: 오픈 카페형 회의실로 이용
- 지원 내용: 현재 낮에만 지도소 직원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청년 농업인에게 제공

(2) 농협강당 활용

- 목적: 농민다방, 도서관 등으로 일부 리모델링, 모든 농촌주민 이용하는 공간 마련
- 지원 내용: 현재 면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농촌주민도 함께하는 공간으로 제공

(3) 청년 농업인 공간 임대 지원 사업

- 목적: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해서 공간을 임대하고 용도는 다양
- 지원 내용: 공모사업으로 진행, 리모델링비는 도시군 매칭 지원

(4) 청년 농업인 파머스마켓을 통한 유통 지원 사업

- 목적:

- ① 상설 장터로 농산물 직거래
- ② 다른 시군 청년 농업인 간 교류
- ③ 생산자·소비자 교류

- 지원 내용: 2개군 이상 결합하여 공모사업으로 진행

○ 청년공유농장 지원 사업

- 목적: 시군유지를 활용하여 청년 농업인 공유농장 조성(협업농장 및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등으로 활용)
- 지원 내용: 시군 단위 시범사업으로 설치(2~3개소)

○ 폐교 활용방안

- 목적: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공유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임대해 줄 필요가 있음

* 내부: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의 교육 및 놀이 공간으로서 도서관과 카페, 목공실, 게스트하우스, 6차산업화 공간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운동장은 텃밭이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 교육 오픈 공간으로 활용함. 정기적인 로컬푸드 장터나 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열어 도시민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

-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충남폐교자산 활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각 이외에 임대(대부)의 경우, 공공 목적의 경우에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두고 있어 현실적인 임대료로 보기는 어려움(부록 참고)

- 전제 조건:

- ① 임대비: 공공의 목적인만큼 임대비를 대폭 낮추어 제공
- ② 규제완화: 농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등 도의 관련 실과와 협의 필요

- 지원 내용: 내외부 리모델링비 지원 필요(도시군 매칭)

□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 청년 농업인들이 주도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 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 마련이 필요함

〈부록〉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0.10.05.]

관리책임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41-635-3626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삭제 2015.2.23>

③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2.14>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2012.12.31.>

4. 양어장을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야를 마을회·비영리법인 등이 임업부산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9.4.30>

5.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신설 2014.2.14>

6.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가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 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 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8.7.30>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⑥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